Vol.024

SUNGWOO
HITECH
MAGAZINE

별을 쏘다

2021+ Summer

성우하이텍

중소벤처기업

⑤ 제30926호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왼쪽 사진은 성우하이텍이 아산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모습.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오른쪽 사진)과 현장 사진(가운데 사진).

부산 유일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미래車 기술 확보에도 총력

〈소재-부품-장비〉

우수 중견기업

㈜성우하이텍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성우하이텍(www.swhitech.com)은 부산 기장군 정관에 본사를 둔 부산 향토 기업이자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 분야 국내 대표 중견기업이다. 국내외 종업원 수만 1만7000여 명, 매출액도 3조3894억 원(2019년 IFRS 연결 기준)에 달한다.

졌다. 성우하이텍은 수주와 거래처 확보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1997년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를 계기로 국내 부품 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 북경을 시작으로 무석, 연태, 심양, 창주, 충칭 등까지 중국 시장으로 확대했고 2004년에는 체코 오스트라바에 진출하며 유럽시장에 발을 들였다.

2011년과 2014년에는 자동차의 강국인 독일 한뮌덴과 바바리아에 WMU와 WMUB를 설립해 BMW, 폭스바겐, 아우디에 납품하고 있다. 중국, 유럽과 함께 3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원자재 가공부터 제품 출고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전 과정 수행

현대기아차 파트너로 동반 성장 해외 시장서도 기술력 인정받아

부품업계 최초 R&D 센터 건립 독자 기술로 친환경차 분야 공략

위기일수록 힘을 합치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 문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

텍이 보유한 국내외 특허는 전체 출원만 1583건에 이르고 이 중 등록은 900건에 달한다.

소재 가공에서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 기술력과 설비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위기를 거친 뒤 다져진 역량이다. 대표 기술은 차체 강성을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향후 이 기술은 전기차, 수소차, 드론 등 모든 미래 자동차에 통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초고장력강, 알루미늄, CFRP(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와 같은 신소재를 적용한 경량화 성형 기술과 고강도 판재를 성형하는 롤포밍 공법, 초고장력강 성형을 위한 핫스탬핑 공법, 소재가 다른 이종재료 접합 기술, 알루미늄

㈜성우하이텍 주요 연혁

1977년 8월	성우금속공업사 설립
1994년 10월	기술연구소(현 R&D센터) 설립 인가(과학기술부)
1997~2017년	중앙아시아(우즈베크법인), 인도 법인(첸나이 외 2개 법인) 설립
1999년 8월	차량용 범퍼빔 제조 방법 미국특허 획득
2002~2015년	중국 북경 외 6개 법인 설립
2005~2012년	유럽지역(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독일) 법인 설립
2007년 11월	은탑산업훈장 수훈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지하는 부품 분야 국내 대표 중견기업이다. 국내외 종업원 수만 1만7000여 명, 매출액도 3조 3894억 원(2019년 IFRS 연결 기준)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철강 원자재와 관련한 가공, 성형, 조립, 도장 등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성우하이텍 관계자는 "원자재 가공부터 제품 출고까지 자동차 차체 제조 전 과정이 가능한 기업은 국내외에서 독보적"이라며 "특히 각 과정의 기술력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회사는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퍼레일, 국내 최초 레이저 알루미늄 용접 기술을 적용한 도어, 후드 등 차체부품 제조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1977년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성우금속공업사'로 시작했을 당시엔 주로 농기구와 주방기구를 생산하면서 스테인레스 제조 기술을 갖춰 나갔다. 스테인레스 기술만큼은 여느 기업과 견줘도 밀리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실제 기술력을 발판으로 1983년 현대자동차의 스텔라 모델 차체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수주하면서 사업의 급격한 발전과 전환이 이뤄

한뮌덴과 바바리아에 WMU와 WMUB를 설립해 BMW, 폭스바겐, 아우디에 납품하고 있다. 중국, 유럽과 함께 3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축인 북미에서는 2014년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 이어 2016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무소를 설립해 기아,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납품 중이다.

현대기아차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1차 벤더인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와 동반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를 넓히고 있다. 이는 기술력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내외 협력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연 '기술력'이다. 한 단계 앞을 내다보는 시선으로 설립 이래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고 적시 투자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미래차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단연 돋보인다. 변화와 투자를 통해서 성장해온 기업 DNA가 차세대 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성우하이텍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성우하이텍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위기일수록 힘을 합치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 문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동차 기업들의 부진과 맞물려 사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투자와 더불어 어려울수록 힘을 합치는 상생의 노사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문화가 형성돼 있어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는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이에 화답해 노동조합은 임금 동결, 상여금 반납 등을 결의했다. 이후 회사는 위기를 극복한 뒤 직원들에게 차액을 다시 되돌려 주며 노사가 한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속에 2015년 이명근 회장이 개인 주식 182만9450주(당시 274억 원)를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증여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와 감사를 표하고자 한 증여였고 이는 법인이 아닌 최대 주주가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글로벌 차체 부품 제조사로 성장

성우하이텍은 1994년 자동차 차체 부품업계 최초로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및 제품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현재도 급격한 자동차 제조 기술의 변화에 선도적인 제조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연구소 2곳(경남 양산, 수원), 중국 연구소 1곳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성우하이

량화 성형 기술과 고강도 판재를 성형하는 롤포밍 공법, 초고장력강 성형을 위한 핫스탬핑 공법, 소재가 다른 이종재료 접합 기술, 알루미늄 레이저 접합기술, 자동차의 측면 충돌을 향상하기 위한 강성용 복합소재 CFRP 성형 기술, 충돌 성능 강성을 위한 설계 해석 기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알루미늄은 용융점이 낮아서 이종 소재로 접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우하이텍은 10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레이저 알루미늄 용접 기술을 적용해 제네시스 G80과 GV80 차체를 제작해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다. 성우하이텍이 개발한 기술은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아 부산에선 유일하게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수출·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가 자동차산업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기존 성과만으로도 국내 차체 부품사로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지만 이문용 대표의 시선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2016년 자율주행차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성우스마트랩을 설립하고 2018년에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FIR) 기술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아다스카이(ADASKY)와 조인식을 갖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아다스카이는 적외선 카메라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FIR센서 '바이퍼(Viper)'를 개발했고 성우하이텍은 20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투자를 통해

2005~2012년	독일) 법인 설립
2007년 11월	은탑산업훈장 수훈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11년 12월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대상(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2012년 9월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4~2017년	북미지역(멕시코 법인, 미국 지점) 설립
2016년 1월	성우스마트랩(자율주행차 관련 센서류) 설립
2017년 12월	5억불 수출의 탑 달성 (한국무역협회)
2019년 12월	국내 최초 Full 알루미늄 도어 신기술 적용(제네시스 GV80,G80)
2021년 1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부산 최초) 선정(산업통상자원부)

기존에 연구 중이던 라이다(LiDAR·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장치)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분야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은 미래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전기차 배터리케이스를 양산하고 있고 향후 배터리시스템(BSA) 분야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해 고압용기인 수소저장탱크를 양산하기 위해 R&D센터에서 연구개발 중이다. 최근 성우하이텍 멕시코에서는 북미 GM사와 전기차 차체부품, 배터리케이스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의 국내 독보적인 기술인 차체 생산 기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진출의 시너지 효과는 성우하이텍을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

성우하이텍 이문용 대표
"지금은 미래에 대한 통찰 키워야 할 시기"

"언제나 새롭고 참신한 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성실한 사원,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우리 회사." 성우하이텍을 설립한 이명근 회장의 경영철학이 담겨 있는 사훈이다. 회사의 경영방침인 창의, 혁신, 소통은 물론이고 회사의 인재상인 자기계발, 전문성, 창의성과도 연계돼 있다.

이문용 대표는 "회사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구성원 스스로도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해 회사와 함께 꿈을 이루고 나누자는 설렘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우하이텍이 창사 이래 핵심가치로 지켜온 '최고의 품질이 최선의 영업'이라는 품질에 대한 신념, '기술이 곧 미래'라는 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특히 우리 회사의 강점인 존중하는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리딩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차 부품에 대한 사업화와 글로벌 고객사와의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가 그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이 대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직원을 대하고 있다"면서 "고객과 직원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나아가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성우하이텍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라톤 행사, 지역의 장학활동, 김장 나누기 행사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를 외면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마스크 등 방호물품을 지급하고 후원금을 늘렸다. 이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기업 문화 또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전했다.

CONTENTS

Vol.024 2021+SUMMER

SUNGWOO HITECH
MAGAZINE

08
NEW SUNGWOO

22
SAFETY

28
CHALLENGE

32
COMMUNICATION

06 ISSUE & NEWS

08 NEW SUNGWOO
- 성우하이텍의 친환경 부품, 환경과 사람이 중심 되는 미래 차시장을 달리다
- 강하고 유연한 제조현장 구축, 라인 효율 향상에서

14 NEW TECHNOLOGY
- 수소전기차 시대
- 효율 향상, 아주 작은 낭비의 개선부터 특별강연 <KARAKURI 이론과 사례 연구>

20 HISTORY
-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해온 성우하이텍 44년

22 SAFETY
-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대응 완료!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대비 화재진압 훈련

24 EDUCATION
- 언택트 시대, 온택트로 通하다

28 CHALLENGE
- 성우하이텍과 함께 부산을 달리다

32 COMMUNICATION
- 성우인, 당신의 마음을 보여줘~
- 우리 함께 풀어요_ 소통공감협의회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성우하이텍 홍보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친환경차 시대를 선도하다

수송 체계의 패러다임이 전기·수소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로 빠르게 바뀌는 시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신축한 성우하이텍이
친환경차 부품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40
INTERVIEW

44
MOVIE

48
CULTURE

50
GOING

38 HEALTH
▸ '방관자 or 착한 사마리아인'
응급상황을 만났을 때 성우인의 선택은?

40 INTERVIEW
▸ 사진으로 기억하고 남기는 위대한 유산
라미 현효제 작가

44 MOVIE
▸ 세계는 지금 K-Movie와 사랑에 빠지다

48 CULTURE
▸ 가볍게 떠나는 언택트 감성 캠핑_ 차박

50 GOING
▸ 아산 여행, 뜻밖에 유럽과 조선을 거닐다!

56 SOCIAL CONTRIBUTION
▸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별을 쏘다

발행일 2021년 7월 23일 (통권 제24호) **발행인**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정보사업본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01.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 신축

관련 기사
08p

㈜성우하이텍이 국내의 친환경차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신축한다. 3월 22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아산시청 기업협력 관계자와 성우하이텍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아산시와 MOU를 체결하여 신규 공장 설립투자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해 합의하였다. 신공장은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일원 27,170㎡의 부지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완공할 예정이며, 최대 44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02. 산업자원통상부 '지역 대표 중견기업' 선정

㈜성우하이텍이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지역 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에서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 21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하였고,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지역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R&D와 함께 수출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03. R&D센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훈련

관련 기사
22p

6월 18일 R&D센터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자위소방대 훈련(1단계)과 배터리 소화적응성 테스트(2단계)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안전환경팀 주관하에 R&D센터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양산소방서 현장대응과에서 지도했다. 자위소방대 훈련은 화재 경보 발생 후 대피, 자위소방대에 의한 소화전 전개와 살수 진압하는 과정을 연습하였고, 배터리 소화적응성 테스트는 소방담요, 소화기를 활용한 소화와 수조에 입수하여 소화했을 때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04. ㈜아산성우하이텍, 아산시 노사평화상 수상

㈜아산성우하이텍이 제10회 아산시 노사평화상 기업체 부문에서 노사평화상을 수상하였다. 5월 6일 아산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제10회 노사평화상 수상식에서 ㈜아산성우하이텍은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사평화상 기업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앞선 2016년에는 개인 부문(정병채 반장), 2019년에는 노동단체 부문(아산성우하이텍 노동조합)으로 수상한 바 있다.

05. '성우공동모금', 백혈병 환우 돕기 후원금 전달

㈜성우하이텍 '성우공동모금'은 "백혈병 환우 돕기" 후원금 500만 원을 (사)한국혈액암백혈병협회에 전달하였다. 5월 12일, 경남 양산 서창공장 1층 홍보관에서 당사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장)과 (사)한국혈액암백혈병협회 정만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의 수술비, 치료보조비, 정서적 후원금으로 지원된다. 작년 8월에도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기탁한 금액은 희귀난치병, 급성림프백혈병, 뇌종양 등을 앓고 있는 환자 5명에게 각 1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5명의 완치자에게는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였다. '성우공동모금'의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은 2020년 8월 28일자 「부산일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06. 김현진 반장(사상반), 연합뉴스에 'K명장 열전' 금형 최고 기술자로 소개

금형공장 사상반에 재직 중인 김현진 반장이 연합뉴스(1월 24일자) 'K명장'에 소개되었다. 30년 금형기술자로서 성우하이텍에 근무하며 겪어온 희로애락을 담은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2020년 출시된 제네시스 GV80과 G80에 공급한 알루미늄 소재를 국내 최초로 다룬 내용에 주목하였다. 1992년 성우하이텍 사상반에 입사한 김현진 반장은 2002년 조장을 거쳐 2020년부터 반장 직책을 수행하며 금형 제작과 보수 업무를 하는 한편, 후배 기술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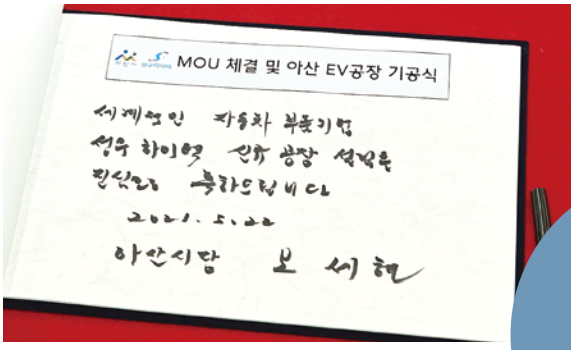
성우하이텍의 친환경 부품, 환경과 사람이 중심 되는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형 뉴딜,
이른바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의 10가지
대표과제 중 하나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 차시장에 대비하다

▶ 전 세계적인 흐름 역시 다르지 않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석유 중심 수송 체계의 패러다임이 전기·수소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주춤했던 친환경차 시장 성장 속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고, 중국은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20%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성우하이텍은 40년 차체 제조 역사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합금,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소재를 이용한 차체 개발에 성공하여 경량화와 고강도 유지 기술을 인정받았다. 2020년 제네시스 G80과 GV80가 성공적인 론칭을 하는 데도 국내 최초 레이저 알루미늄 용접 기술을 적용한 성우하이텍의 기술력이 큰 몫을 했다.



미래 차시장을 달리다

신소재 개발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R&D 분야 투자 확대에 따른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중순 80kWh급 알루미늄 배터리팩 자체 개발을 시작한 성우하이텍은 2019년 현대모비스로부터 2021년 중순 유럽으로 공급될 SG2 PHEV의 배터리팩 케이스를 수주했다. 2023년 1월 양산 예정인 폴란드 Renault EV2020 모듈 케이스 수주, 2022년 10월 양산 예정인 미국 Volvo SPA MEP2 모듈 케이스 수주 등 국내외 완성체 업체들과 협력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양산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본토 진출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GM 본사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BEV3)을 적용한 Cadillac 최초 순수 전기차 '리릭(Lyriq)'의 차체와 배터리 케이스를 ㈜성우하이텍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납품할 예정이다. GM 본사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라인업에서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의 체질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릭(Lyriq)'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작하는 첫 차량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 '리릭(Lyriq)'은 올해 12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28만 대를 양산할 예정이다.

나날이 성장하는 친환경차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성우하이텍은 아산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부품 전초기지를 마련하였다. 신축공사를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이 그것이다.

친환경차 시장 발전 견인할 배터리 시스템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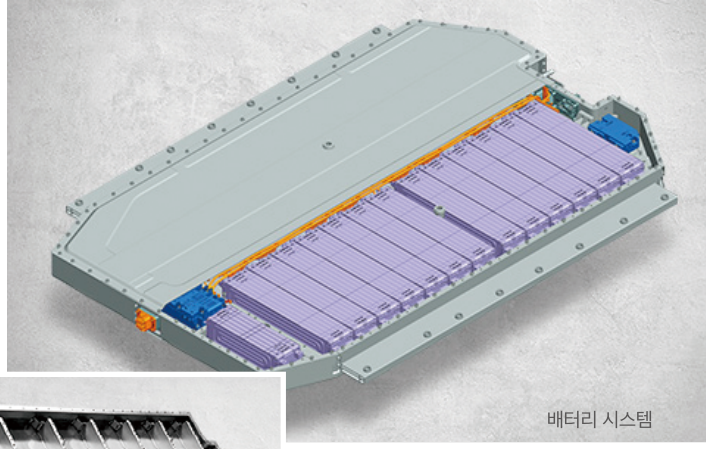
▶ 3월 22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아산시청 기업협력 관계자와 성우하이텍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 앞서 ㈜성우하이텍과 아산시는 MOU를 체결하고 신규 공장 설립 투자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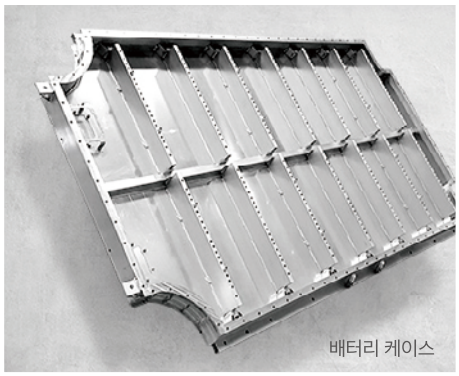
신공장은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일원 27,170㎡의 부지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44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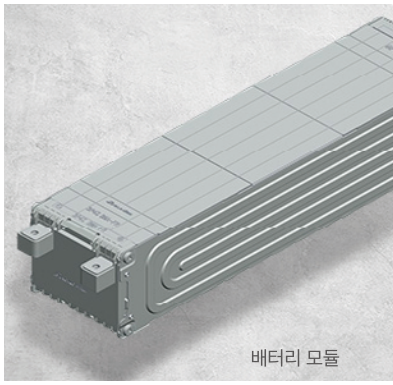
신공장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장착될 차세대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케이스를 2022년 초부터 연간 15만대 규모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성우하이텍은 향후 배터리 케이스 생산을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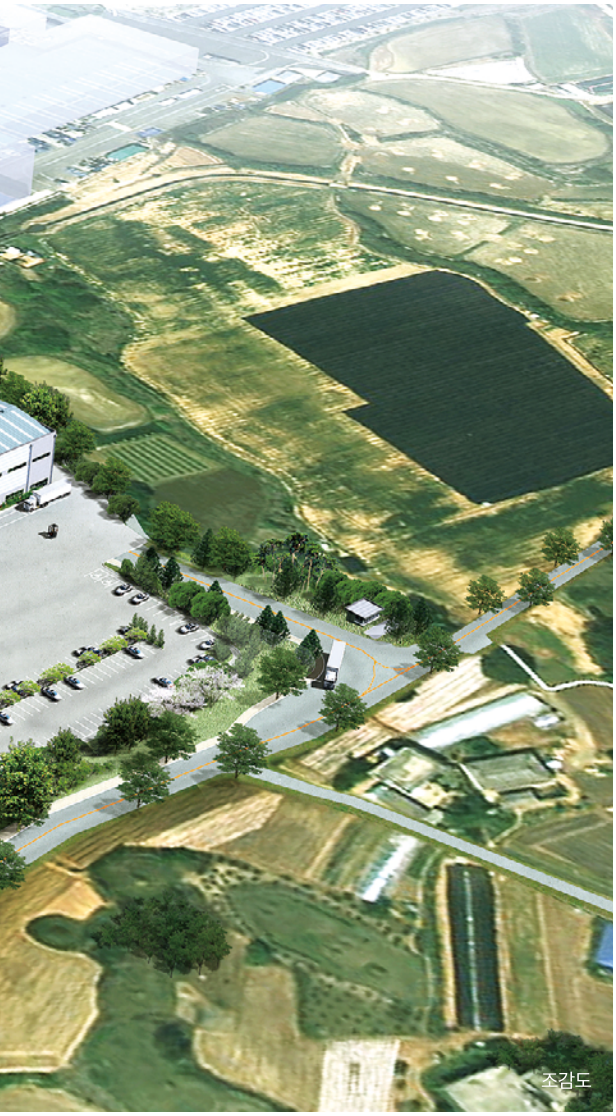
어 배터리모듈, 전장부품, 와이어링하네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로 제어되는 최종제품인 BSA(Battery System Assembly)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설비를 갖춤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완제품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앞선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로 친환경차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모듈


조감도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신
㈜아산성우하이텍 이문용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투자로 아산성우하이텍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더욱 성장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산시도 '기업하기 좋은 아산 만들기'를 위해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오세현 시장

㈜아산성우하이텍 EV(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

-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삼봉로 162번길 17번지
- **규모** : 20,639평 부지 / 10,821평 규모(2층)
- **개발 제품** : 배터리 케이스_연 25만 대 / 배터리 시스템_연 10만 대
- **고용 창출**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400여 명

강하고 유연한 제조현장 구축, 라인 효율 향상에서

라인 효율 향상 프로그램 1차 성과보고회

불량이 계속 발생하는 라인, 같은 문제로 가동을 반복하여 멈추어야 하는 라인, 공정책임자가 작업 및 동선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라인. 모두 라인 가동 효율에 악영향을 미쳐 생산성이 떨어지는 라인들이다. 이 같은 현상이 국내외를 막론한 생산 설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혁신의 시작 공정책임자로부터

▶ 2018년 3월, 성우하이텍은 조반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인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s Training School)를 출범하여 혁신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공정책임자만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강한 제조의 중심은 현장 공정이며, 라인을 직접 운용하는 책임자들이야말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최전방에서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강하고 유연한 제조 현장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성우혁신사관학교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선진기업 벤치마킹, 고유의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조반장들의 혁신 역량을 키워갔다.

다른 방면에서도 성우하이텍 내부에서는 혁신의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성우하이텍만의 제조시스템, 'SHPS(Sungwoo Hitech Production System)'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성우하이텍 자체 제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하고 유연한 제조 현장 실현의 최전방에 있는 공정책임자들의 강한 혁신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효율 향상의 핵심은 '사람'

▶ 4월 21일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에서 '라인효율향상 프로그램' 첫 번째 과정의 1차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 과정은 라인 종합효율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을 모델 라인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각 반의 목표 달성을 위해 6개월간 진행된다.

조립 1, 2, 3, 4, 5반, 가공 1반에서 모델 라인 6개를 설정하였다. 모델 라인으로 설정된 각 라인 조반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TFT에는 직접 지원조직(생산기술, 보전, 품질) 관리자를 비롯하여 '공정혁신그룹' 멤버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성우혁신사관학교 우수 졸업생으로 구성된 인원들로, 혁신활동을 국내외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라인 효율 향상의 핵심은 사람. 직접 일을 하는 직원들이 라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구축된 프로그램에 따라 라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교육과 효율 향상을 위한 전략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공정책임자들은 3개월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경과 보고회에서 각 반의 분석 자료를 공유하였다. 이어진 3개월간은 직접 지원조직 인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생산조반장을 중심으로 생산기술, 보전, 품질 등 직접 지원조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포인트. 모델 케이스로 설정된 6개 라인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자들은 각 라인의 종합효율 향상을 목표로 각 TFT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하였다.

혁신은 그냥 오지 않는다. 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도 밑받침되어야 한다. 현장 실무자들의 혁신 의지와 연관 부서 간 강력한 업무 협조 또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여 시너지를 낸, 강력하고 유연한 성우하이텍 현장을 기대해 본다.

수소전기차 시대

"차를 운전하면 할수록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수소전기차는 가능하다.

일상이 된 환경문제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를 녹이고, 강수량이 증가하여 여러 개의 섬과 해안가를 지도에서 삭제시킬 것이라 한다. 그 밖에도 폭염, 가뭄, 집중호우, 한파, 폭설 등 광범위한 기상이변과 재난이 일어나고, 열대성 질병이 확산하는 등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공포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듣거나 읽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도 잠시뿐. 곧 잊고 살게 되는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다르다. '봄철 황사'라 했던 말들이 어느새 과거가 되었고, 지금은 '사시사철 미세먼지'가 일상의 화두가 되었다. 아침마다 오늘의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필수가 되었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한두 대씩은 설치하고 있으며, 창밖을 봐도 파란 하늘과 푸르른 산천(山川)이 뿌연 먼지로 가로막혀 있기 일쑤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피해 규모의 차이는 둘째 치고, 지구온난화보다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수소차 ≒ 수소 폭탄?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자.
"수소전기차는 운전하면 할수록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탱크에 있던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수소이온과 전자로 쪼갠 후 수소이온과 산소를 결합시켜 물로 만들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전기로 만들어 자동차를 작동시킨다. 그러므로 산소 확보를 위해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필터, 막가습기, 기체확산층을 거치면 미세먼지를 99.9% 제거하게 된다. 넥쏘 한 대가 1시간 동안 운행하면 성인 43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며, 승용차보다 훨씬 장기간 운행하는 수소전기버스는 연간 8만 6000km 운행 시 성인 76명이 1년 동안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수소전기차는 운전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한다.

수소전기차가 미세먼지 정화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

수소전기차 '넥쏘'

려 준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소차 ≒ 수소폭탄'이라는 공식은 완전 잘못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 자체를 연료전지에 주입하여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발생한 전기로 자동차를 작동시킨다. 반면,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이중수소가 필요한데, 이 두 물질은 수억℃의 고온과 초고압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우리 은하계에서는 태양 부근에서나 자연 발생 된다. 또 1930년에 독일의 루돌프 에렌이 발명한 '에렌 엔진', 1993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 수소자동차 '성균1호'에는 내연기관에서 수소를 폭발시키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여러 단점이 드러나 현재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방식만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수소전기차는 수소폭탄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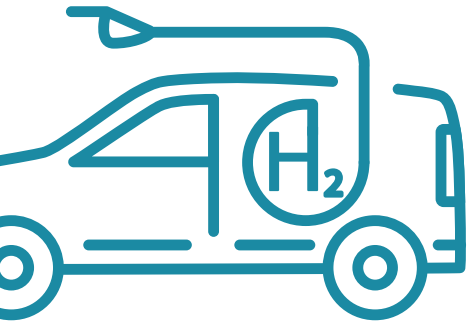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시대,
환경과 평화와 평등에
기여하는 길이다.

Hydrogen

우리나라 수소전기차 기술의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앞서 있는 국가이다. 2018년에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넥쏘는 2019년 4,194대, 지난해에는 5,786대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점유율 69.0%를 기록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이 약 200만 대 정도로 예상되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연 50만 대의 수소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세계 시장의 25% 점유를 차지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바야흐로 수소전기차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수소전기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소 연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회의감, 연료전지 촉매로 쓰이는 백금으로 인한 높은 생산원가, 100년 역사의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경쟁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3년 전국 13개였던 수소충전소가 21년 현재 60여 개 운영 중이며, 2013년 투싼 수소전기차는 1억5천만 원에 달했으나 현재 넥



Fueled Car

쏘는 7천만 원(보조금 미반영 금액 / 보조금 반영 시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더하여 1회 충전으로 609km를 달릴 수 있으며(부산에서 서울을 들렀다가 속초까지 갈 수 있다), 영하 30℃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으며(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운행 가능하다), 무엇보다 10년 16만km를 보증할 만큼 내구성이 내연기관차를 따라잡았다(10년 16만km를 타면 연료전지를 못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 시기를 10년 16만km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평화의 에너지 수소

수소는 평화의 에너지이다.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은 이래 에너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석유의 매장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이를 차지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인류는 피를 흘렸다. 그러나 수소는 세계 어느 곳에나 있으며 가난한 국가에서도 풍족하게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민주적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시대, 환경과 평화와 평등에 기여하는 길이다.

㈜성우하이텍은 축적된 신소재 기술을 활용해 고압용기인 수소저장탱크 양산을 위하여 R&D센터에서 연구 개발 중이며, 수소연료전지 트럭(프로젝트명 : QZ FCEV)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다.

권순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가나문화콘텐츠, 2021 초판 4쇄 참고

#가라쿠리 개선 #간이자동화 #성우 현장 #TPS #JUST IN TIME #돈 안 드는 자동화 #아이디어 #원가 절감 #낭비의 철저한 배제 #작업자 동작 #작업 효율화 #안전성 향상 #공정책임자 편의 #단순/심플 #NEW SUNGWOO

효율 향상, 아주 작은 낭비의 개선부터 특별강연 <KARAKURI 이론과 사례 연구>

한 회사의 자동차 조립라인 현장. 작업자가 막 작업을 끝낸 부품을 부품 걸이에 올려놓자 부품이 경사면을 타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다. 이를 받은 다음 공정 작업자가 부품을 집어 드니, 가벼워진 걸이는 이내 도르래에 달린 추의 무게 때문에 이전 공정으로 자동 복귀한다. 자동차 회사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웬 도르래? 놀랍게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실제 현장이다.

도요타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이끈 'TPS(Toyota Production System)'는 도요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생산방식을 일컫는다. 공정 자동화, 유연 생산체제를 확립하여 '낭비'를 없애는 시스템이다. 불량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력에서 비롯된 '자동화',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만든다(가동률 향상과 낭비·불균형·무리의 배제)는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 도요타 생산방식의 두 가지 기둥이다.

가라쿠리 개선은 자동화와 JIT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16~17세기 기계 없이 사람이 손수 만든 장난감 도구에서 착안하였다. 정교한 장인정신이 담긴 가라쿠리는 도요타를 비롯한 많은 일본기업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낭비를 없앰으로써 원가를 절감하는 혁신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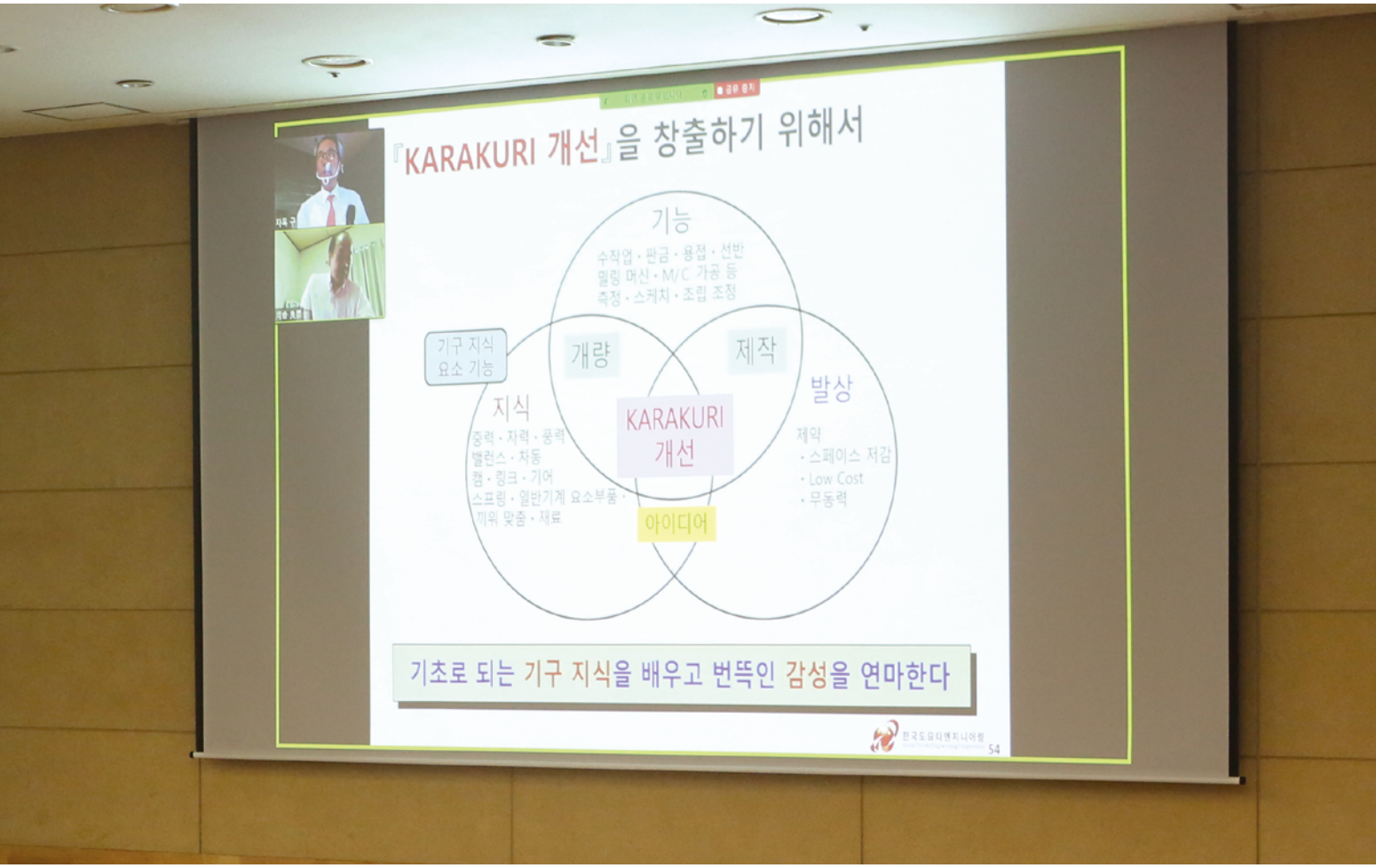
성우하이텍은 도요타의 가라쿠리 개선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 제1회 가라쿠리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사내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대회 개최와 홍보 및 지원이 밑받침 된 데 더해, 실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정책임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가라쿠리 개선을 성우하이텍 현장에 적용한 지 4년. 6월 3일 본사 대강당에서 도요타 가라쿠리 개선의 이론을 알아보고, 장인에게서 직접 적용 사례를 들어보는 특별 강연이 마련되었다. 도요타의 품질 개선을 다룬 책과 강연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 업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구자옥 한국도요타엔지니어링 대표가 통역을 맡았고, 도요타 합성에서 44년째 근무하며 다양한 제조경험을 쌓은 후쿠자키 선생이 화상 연결을 통해 가라쿠리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전사적으로 가라쿠리를 전개하고 있는 도요타 현장, 가라쿠리의 기본 8기구, 동영상으로 보는 실제 가라쿠리 개선 사례, Q&A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강의는 아산성우하이텍을 비롯하여 국내 다른 사업장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

무수한 별처럼 쏟아지는 아이디어들이 실제 성우하이텍 현장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강연이 자극이 되어주었기를 바란다.

K A R A K U R I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해온 성우하이텍 44년

1977 ~ 선택과 집중

법인전환과 기반 조성 »

1977
성우금속공업사 설립
(부산 좌천동)

1983
스텔라 몰딩 개발 및 납품

1989
공장 신축 이전
(부산 정관)

도전

1981.12
㈜ 성우금속으로 법인전환

1990 ~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 회사

기술축적과 사업 도약 »

1990
㈜성우몰드 설립
(現 금형공장)

1994
기술연구소 설립
(現 R&D센터)

1995
㈜성주산업 설립
(現 ㈜아산성우하이텍)
코스닥 시장 상장

1997
㈜성우시앤시 설립
(現 코일센터)

혁신

1994
-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 기술연구소 설립
- 원자재 가공, 성형, 조립, 도장 등 全과정 자체 진행

1998 ~ 글로벌 성우하이텍

미래 자동차 시장 중심 기업으로 성장 »

1998
인도 JSL 설립
(現 SHI)

2002
북경성우 차과기유한공사 설립
(중국 베이징)

2005
성우하이텍 S.R.O 설립
(체코 오스트라바)

2008
성우하이텍 RUS 설립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12
독일 WMU社 인수
(독일 한뮌덴)

2014
멕시코 성우 설립
(멕시코 몬테레이)

2021
성우아메리카 설립
(미국 테네시)

성장

2000. 4

- 상호변경
  (㈜성우금속 → ㈜성우하이텍)
- 해외법인 : 10개 국가 / 22개 사업장

2016

- 성우스마트랩 설립

2018

- 이스라엘ADASKY社 조인식체결

2020

- 국내 최초 알루미늄 용접 기술 적용 제품 출시
  (제네시스 G80/GV80)

2021

-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 설립 진행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대응 완료!

전 기 차 배 터 리 화 재 사 고 대 비 화 재 진 압 훈 련

지속 가능한 전기 에너지로 운용하는 전기차가 미래형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인 데다 높은 연비와 낮은 소음 등은 전기차의 주요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위험 요소도 있다. 바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6월 18일 오후 2시 ㈜성우하이텍 R&D센터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가정한 민관합동 화재진압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EV공장 신축과 함께 향후 배터리 화재사고를 대비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양산소방서와 성우하이텍 안전환경팀, R&D센터가 참여한 민관합동훈련 방식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훈련은 관내 최초로 실시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 훈련으로, 양산소방서 소방대원 11명, 소방차 2대, 구급차 2대가 동원되었다.

전기차 배터리 실험실 내 BSA(Battery System Assembly) 발화로 인한 건물화재를 가정한 정기 소방훈련이 진행된 데 이어, 곧이어 2차 훈련으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적응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배터리 화재 소화적응성 테스트를 위해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화재 원인을 가정하여 충전된 BMA(Battery Module Assembly)를 금속송곳으로 관통시켜 분리막 손상에 의한 강제 발화 후, 다음의 6가지 소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소방담요 소화

소화수조 입수 소화

ABC분말소화기 소화

전기차배터리 발화 시험

이산화탄소소화기 소화

금속(D형)소화기 소화

6가지 소화 실험

- ▶ 소방담요에 의한 화염 차폐능력
- ▶ ABC분말소화기 진압
- ▶ 이산화탄소(CO_2)소화기
- ▶ 금속(D형화재)소화기
- ▶ 주수소화(소방수 진압)
- ▶ 수조 담금(입수)

이번 배터리 화재 진압 훈련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남겼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소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기존에 비치된 세 종류의 소화기(ABC분말, 이산화탄소, 금속화재용)는 배터리 화재 시 진압 효과가 미미했다. 2차 확산 방지에는 소화전을 이용한 지속적인 살수 또는 발화된 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두 번째는 연구용 배터리 보관실 설치 결정이었다. 기존의 소화 기구 사용을 위하여 R&D센터 건물 안에 있던 연구용 배터리 보관실을 건물 밖에 새 보관소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옥외에 새로운 배터리 보관소는 화재 경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화재 진압 및 2차 화재 확산 방지 설비를 갖추어, 배터리 화재 시 신속하고 확실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할 전망이다.

훈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양산소방대원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훈련을 준비한 EV사업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언택트 시대,
온택트로 通하다

성우하이텍은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속에서 2021년 공채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했다. 2020년 12월 19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전형과 1차 실시간 화상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통하여 역량과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매년 진행하던 합숙 교육 대신에 온라인 교육(7일 간)이 진행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적응한 또 다른 변화였다. 신입 사원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향상할 수 있었으며, 후견인 활동(10주)을 통하여 회사생활에 좀 더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인연을 만났다.

ON THE NET

유태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녀 교육은 물론 모든 교육에서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막 취학을 시작한 자녀들의 숙제를 풀어주는 대신 풀이 방법을 알려 주고 자녀가 이해했을 때 저 유명한 격언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은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다. 직장 생활도 다를 바 없어서 신입 사원이나 후배 직원에게 쉽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방법을 알려주고 그 직원들이 잘 해냈을 때 보람을 느낀 직장인도 많을 것이다(직장 생활의 보람 중에 하나다. 그 보람도 못 느껴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느껴 보시기 바란다).

기업은 탈무드의 격언을 벗어나야 한다. 결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상사로서, 선배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기업은, 상사는, 선배는 신입 사원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입 사원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관용을 베풀고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경험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과거와 달리 상호작용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구글이 "뛰어난 인재를 뽑아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기업 철학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텍쥐페리의 다음 말은 오늘날 뛰어난 인재를 찾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배를 만들고 싶은가?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동경 하게 하라."

이문용 대표이사사장

입사 때의 설렘과 감사함을 시간이 지나며
종종 잊게 되지요. 처음의 그 열정과 감사함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이 회사에서 후회 없는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역할을 잘 해내면 팀이 잘 되고,
나아가 회사가 발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몰입하기 바랍니다.

강석윤 사원
(아산생산기술팀)

후견인 제도를 통해 팀과 업무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습 기간 2주 동안 현장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잘 경험했습니다. 개발업무를 다 배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의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선배 사원들이 도와주어 이제는 지시 업무에 대해 두 번 세 번 검토하고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사원
(원가1팀)

입사 후 국내 그룹 구성원분들, 원가팀 구성원분들의 관심과 교육으로 원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팀과의 교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해 사내외적으로 다양한 부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BUSAN

marathon

• 성우하이텍배KNN환경마라톤
• 부산마라톤대회
• 부산바다마라톤대회

성우하이텍과 함께

부산을 달리다

봄바람 맞으며 가족들과 나들이 하듯 걷기?
바다 위 다리를 달리며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에 흠뻑 빠져보기?
그도 아니라면 큰마음 먹고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부산의 마라톤 대회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봄님이 오셨으니 달려볼까

성우하이텍배KNN환경마라톤

2021 성우하이텍배 KNN 온택트 환경마라톤 RUN BUSAN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마라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봄, 성우인들은 환경마라톤 개최 소식으로 봄을 맞는다. 환경마라톤 개최 소식은 곧,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야외에서 기분 좋게 달릴 정도로 날이 따뜻해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봄소식=환경마라톤대회'라는 공식이 통한다.

이 대회에는 성우인의 참석률이 특히 높다.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달릴 수 있어, 성우인들도 매년 자녀와 함께 부산의 명소를 달리는 의미 있는 경험을 즐긴다. 부담 없이 산책하듯 다녀올 수 있는 코스가 봄맞이 가족 나들이로도 안성맞춤이다. 이렇다 보니 <별을 쏘다>를 통해서도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다.

2015년 <별을 쏘다> 4호에서는 이 대회에 참가한 해외법인 직원들을 만났다. 성우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강달리기(5km)를 택한 직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여한 것이 놀라웠다.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바다 근처를 달리는 마라톤 코스가 인상적이었다"라는 등 소감을 전했다.

1

2

3

4

5

6

2019년에는 신입사원 김순근 사원이 이 대회를 통해 생애 최초 마라톤 도전에 나섰다. 10km 경쟁부문 출전을 위해 함께 달릴 친구와 대회 준비를 했고, 51분이라는 기록지를 받았다. <별을 쏘다> 편집팀은 당일 아침 김순근 사원의 준비운동 시간부터 결승선을 밟는 짜릿한 순간까지를 함께하며 특별한 순간을 소개하였다(관련 기사▶ <별을 쏘다> VOL.20, 22p).

생각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지난해 대회는 좀 더 색다르게 펼쳐졌다. 최초로 시도되는 온택트 마라톤. '온택트 마라톤'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해짐에 따라, 지역과 시간에 상관없이 마라톤을 즐기고 인증하여 진행하는 비대면 마라톤 방법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회가 두 번이나 미뤄지면서 오랫동안 지속해온 환경마라톤을 미루거나 중단하기보다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윤준영 사원이 도전에 나섰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설렘과 긴장을 느끼던 평소와 달리, 러닝 앱을 켜고 혼자 달리는 것이 영 어색하기만 했다는 윤준영 사원. 하지만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걷고 뛰는 마라톤의 매력만은 생생하다며 근심, 걱정, 우울, 피로를 모두 강바람에 날려 버리고 희망, 도전, 건강, 행복을 얻어 오는 기분이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별을 쏘다> VOL.23, 36p).

대회 뒤에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환경마라톤만의 백미이다. 가족과 아름다운 바다 근처를 걷고 난 후 즐기는 만찬. 모처럼 가족과 나들이를 하고, 더불어 동료애까지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에 성우인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즐거움이 넘친다.

특별한 도전이 필요하다면? 풀코스 마라톤

부산마라톤대회

www.bsrun.co.kr
부산 마라톤

부산마라톤대회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 대회이다. 그런 만큼 이 대회에는 기록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이 많고, 경쟁도 어느 대회보다 치열하다. 가까이는 경남·울산지역부터 전국의 마라토너들도 다대포해수욕장, 낙동강 하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달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코스 역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적어 초보자가 뛰기에도 부담이 덜한 편에 속하는데, 다만 낙동강 하구언~공항로 왕복 구간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맞바람이 불어와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성우인 중에도 쉽지 않은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

다리 위에서 만끽하는 청량한 기운

부산바다마라톤대회

부산바다마라톤대회는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위에서 펼쳐지는 마라톤 대회이다. 바다 위를 달리며 부산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매년 많은 참가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역대 최다 인원인 2만 명이 참가했던 2016년 15회 대회는 특히, 하프코스가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를 이어 달리는 새로운 코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세 개의 해상대교 위를 달리는 세계 유일의 대회로 화제를 모은 것이다.

성우하이텍은 2007년부터 해당 대회가 열린 2016까지 매년 1천 명 이상이 참가해 9년째 최다 인원 참가기업이 되었다. 해상의 다리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이벤트들은 대회의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인디밴드와 치어리더, 풍물단의 공연 역시 부산바다마라톤대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다. 요리 모자를 쓴 참가자, 재미있는 페이스페인팅을 한 사람들 등 각양각색 옷차림도 눈길을 사로잡았다(관련 기사▶ <별을 쏘다> VOL.10, 24p).

성우인의 일상에 색다른 활력을 주던 마라톤 경기가 올해도 온택트로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이다.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 내년에는 동료와 함께 어울려 달리는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 이가 있다. 아산성우하이텍 이수승 차장이다. 이미 풀코스 완주 5번을 성공했던 터에, 고향인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수승 차장이 마라톤과 맺은 인연은 성우하이텍 덕에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KNN환경마라톤대회'를 후원해온 성우하이텍에 입사한 것이 계기가 된 것. 2006년 해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10km 코스를 달렸다.

이수승 과장이 말하는 마라톤의 매력은 무엇일까.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무거워지며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은 괴로움, 바로 그 순간 찾아오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전한다. 흔히 '하늘을 나는 기분' 혹은 '꽃밭을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이 상태는 한계를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것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체력을 컨트롤하여 완주하였다는 자신감과 성취감 역시 크다. 대회 참가를 위해 꾸준히 운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강관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관련 기사▶ <별을 쏘다> VOL.15, 16p)

1_ 환경마라톤에 출전한 김순근 사원(2019)
2_ 환경마라톤 대회 후 가족과 식사를 즐기는 성우인
3_ 이수승 과장의 풀코스 도전
4_ 온택트 마라톤 대회의 윤준영 사원(2020)
5_ 많은 성우인이 함께하는 환경마라톤대회
6_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늘 마라톤 대회에서 직접 달린다.
7_ 부산항대교를 달리는 마라토너들
8_ 다리 위에서 기념컷을 남기는 성우인들

성우인, 당신의 마음을 보여줘~

성우인이 생각하는 호감형 동료와 그 반대 경우는 어떠한지, 직장생활 권태기를 느낀 적은 없는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이겨낸 성우하이텍의 대응에 대한 성우인의 생각은 어떤지. 다양한 성우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조사 대상 : (주)성우하이텍, (주)아산성우하이텍 임직원
▶조사 기간 : 2021년 1월 16일~2월 1일
▶조사 방법 : 그룹웨어 내 온라인 설문/모바일 설문
▶응답 비율 : 69%

Q. 우리 회사 내 호감형 동료는?

❶ **'친절왕' 형** 업무 요청,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답해 주는 동료 ▶ **459명(37.3%)**
❷ **'만반잘부' 형** 매사에 인사성이 밝은 동료('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 **232명(18.8%)**
❸ **'칼타임' 형** 업무기한이나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동료 ▶ **229명(18.6%)**
❹ **'알파고' 형** 업무에서 실수 없고 정확히 일 처리를 해내는 동료 ▶ **182명(14.8%)**
❺ **'사내피셜' 형** 사내 동향, 인사 등 주요 정보에 대해 접근이 빠르고 공유를 잘 해주는 동료 ▶ **459명(37.3%)**
❻ **'컴잘알' 형** PC, 설비, 기구 문제가 생기면 잘 도와주는 동료 ▶ **459명(37.3%)**

→ 성우인들은 '친절한 직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성 밝은 동료, 업무 기한 및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동료가 호감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친절, 사교성, 신뢰는 업무 능력보다 더 큰 호감을 줍니다.

Q. 이런 점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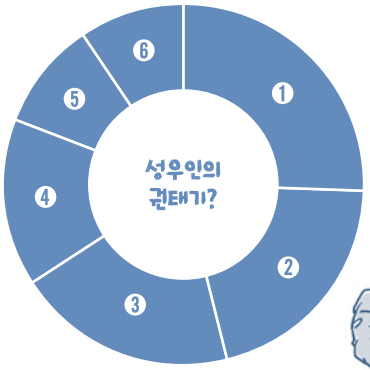
❶ **'고답이' 형** 고구마를 먹었을 때처럼 매사에 앞뒤가 꽉 막힌 동료 ▶ **250명(20.3%)**
❷ **'핑거-프린스' 형** 본인 손은 까딱하지 않고 굳이 남을 시키는 동료 ▶ **250명(20.3%)**
❸ **'내 일 아님' 형** 업무 요청 및 협조 시 처리를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동료 ▶ **241명(19.6%)**
❹ **'월급루팡' 형** 일은 하지 않고 휴게시간, 노는 시간이 많아 보이는 동료 ▶ **216명(17.5%)**
❺ **'내로남불' 형** 성과가 잘 나오면 내 탓, 못 나오면 남 탓하는 동료 ▶ **187명(15.2%)**
❻ **'라떼는 말이야' 형** 과거 업적을 과시하고 훈수를 두는 동료 ▶ **88명(7.1%)**

→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거나("고답이", "내 일 아님"), 업무를 미루는 것("핑거-프린스", "월급루팡")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 협동, 성실은 동료들이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는 덕목입니다.

Q. 처음 권태기를 느낀 시점은 언제인가요?

❶ 권태기 느낀 적 없음 ▶ **316명(25.6%)**
❷ 입사 1년~3년 ▶ **254명(20.6%)**
❸ 입사 3년~5년 ▶ **243명(19.7%)**
❹ 입사 5년~10년 ▶ **184명(14.9%)**
❺ 입사 1년 미만 ▶ **119명(9.7%)**
❻ 입사 10년 이상 ▶ **116명(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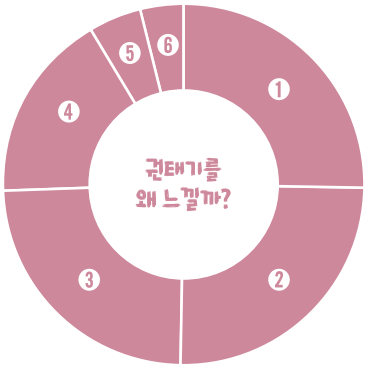
공정책임자 5~10년 ▶ **118명(17.1%)**
사무직 1~3년 ▶ **144명(26.7%)**



→ '업무에 싫증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경력이 짧은 사람들도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직급의 직원들 중 공정책임자는 5~10년, 사무직은 1~3년이 가장 권태기를 느낀다고 답하였습니다.
경험을 떠올려 그 시기 연차에 있는 후배 직원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세요.
10년 이상 근무한 상사들도 권태기를 느끼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상사들도 업무를 대충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니 느끼는 권태감일 것입니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상사들을 조금 더 존중해 주세요.

Q. 권태기를 느낀 이유는요?

❶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 **231명(18.8%)**
❷ 직장 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 **228명(18.5%)**
❸ 과도한 업무량/야근 때문에 ▶ **221명(17.9%)**
❹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워서 ▶ **156명(12.7%)**
❺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43명(3.5%)**
❻ 경쟁을 유도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 **33명(2.7%)**



공정책임자 직장 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 **152명(22%)**
사무직 직장 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 **158명(29.3%)**

→ 전 직원들은 '보상 부족', '대인관계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 순서로 권태기 사유로 꼽았습니다. 공정책임자는 전 직급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 사무직은 '과도한 업무량'을 주요 원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Q. 어떨 때 성우하이텍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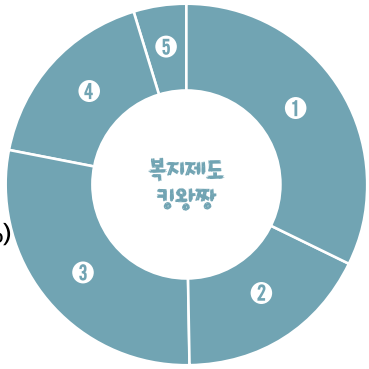
❶ 회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느껴질 때 ▶ **611명(49.6%)**
❷ 근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일 때 ▶ **298명(24.2%)**
❸ 상사, 부하 직원 또는 동료들과의 사이가 돈독할 때 ▶ **154명(12.5%)**
❹ 직원들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나 행사를 진행할 때 ▶ **110명(8.9%)**
❺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및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 **59명(4.8%)**

공정책임자 회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느껴질 때 ▶ **375명(54.2%)**
사무직 회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느껴질 때 ▶ **236명(43.7%)**

→ "회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 회사가 좋다고 느껴진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내부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무 분위기", "돈독한 사이" 등 조직 문화와 관련된 답변도 높았습니다.
좋은 업무 분위기, 도타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배려, 존중이 필요합니다.
공정책임자와 사무직 모두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애정을 느낀다고 답하였습니다.
사무직 과장 이하 직원들은 차장 이상 직원보다 돈독한 동료애를 더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직급이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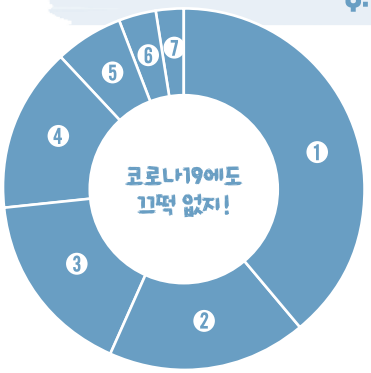
Q. 성우의 복지제도 중 가장 만족하는 것은?

❶ 아이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어린이집, 학자금 지원 ▶ **397명(32.2%)**
❷ 각종 경조사 물품 지원, 명절 선물 지급, 긴급 생활 자금 지원해주는 상조회 운영 ▶ **218명(17.7%)**
❸ 동료, 가족들과 매월 따스한 밥 한 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호프데이카드 ▶ **349명(28.3%)**
❹ 매년 가족, 친지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일 지원 ▶ **210명(17.0%)**
❺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쑥스러워 말로 못 하던 칭찬을 글로 할 수 있는 S-Thanks ▶ **58명(4.7%)**



"어린이집, 학자금 지원", "상조회 운영"을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가족·친지의 경조사를 중요시하는 직원들의 가족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S-Thanks"를 더욱 활성화하여 동료들과 돈독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작은 칭찬으로 손쉽게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에 대한 성우하이텍의 대응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❶ 구조조정 없이 임금 인상 ▶ **482명(39.1%)**
❷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등 개인 건강 지원 ▶ **218명(17.7%)**
❸ 불필요한 회식, 애매한 경조사 참석 제한 ▶ **206명(16.7%)**
❹ 체온 확인, 가림막 설치, 소독 실시 등 위생 강화 ▶ **182명(14.8%)**
❺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74명(6.0%)**
❻ 해외출장 복귀 시, 감사 편지·물품·격리 장소 제공 ▶ **42명(3.4%)**
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안내 메일, 문자 발송 ▶ **28명(2.3%)**

"구조조정 없이 임금 인상", "마스크 등 개인 건강 지원"을 직원들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자는 정신이 직원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불필요한 회식, 애매한 경조사 참석 제한"이 3위로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애매한'의 기준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세대를 넘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풀어요

소 통 공 감 협 의 회

疏通
소 통

共感
공 감

옷을 벗으려면
옷고름을 풀고,
원수와 다시 친해지려면
마음을 풀고, 원한을 풀고,
코가 막히면 코를 풀고.

맺히고, 뭉치고, 얽혀 있는
모든 것을 풀다가
나중에는 심심한 것까지
다시 풀어
심심풀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낸
한국인.

서양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텐션(Attention)'의 차렷 자세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하려면
몸부터 풀어야 합니다.
시험 치러 가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말합니다.
"마음 푹 놓고 해!"

그러던 한국이
지금은 상투 잡고, 멱살 잡고,
분열과 갈등으로 스트레스 왕국으로
되어가고 있지요.

서양 사람의 힘이 긴장에서 나온다면
한국인의 힘은 푸는 데서 나옵니다.

"풀어 버려!" 이 한마디가
분열과 갈등을 창조의 빛으로
바꿀 것입니다.

-푸는 문화,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이어령-

5월 11일 오후 2시, 서창공장 6층 대강당.
국내 전 사업장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다.

성우하이텍은 이날, 21년 상반기 <소통공감협의회>를 개최했다.
<소통공감협의회>는 노사협의회, 익명 고충처리상담(5972 or 사내인트라넷), 사원만족도 조사(ESI, Employee Satisfaction Index), S-Thanks에 이어 전 직원들이 소통하기 위한 성우하이텍 고유의 협의회다.
성우하이텍은 지난해 가을, 제1회 <소통공감협의회>를 오랜 기간 준비하여 시행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소통공감협의회>는 각 본부별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모든 본부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할 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통공감협의회>에서는 각 본부별로 해결된 것 이외에 2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가 눈빛만 봐도 알 것이라 여긴다.

'오래 봐왔으니까.'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소통공감협의회>는 푸는 시간이다. 동료 간에, 팀 간에, 본부 간에 긴장을 풀고, 고민을 풀고, 오해를 풀고, 마음을 풀자. 더 나아가 아집도, 편견도, 고정관념도 푸는 시간이 되는 날, 소통과 공감은 이루어질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소통공감협의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되어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넘치는 성우하이텍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방관자 or 착한 사마리아인’

응급상황을 만났을 때 성우인의 선택은?

6월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켄 스타디움.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 2020) 덴마크와 핀란드의 조별리그 B조 1차전 전반 42분께, 동료의 스로인을 받던 덴마크 대표 크리스티안 에릭센(인터밀란 소속)이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만 29세의 건장한 선수를 쓰러뜨린 것은 ‘심정지’였다.

생과 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4분!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심뇌혈관질환 사망은 연간 5만 명이 넘으며, 이는 전체 사망의 약 19%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심혈관질환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심정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럴 때 외면할 것인가, 혹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고민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른다.

한 번 멎은 심장이 다시 뛰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는 단 4분 안에 결정된다.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경우 1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 확률은 90%까지 높아지지만, 1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은 10%씩 떨어진다. 그리고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된다. 대부분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하겠지만, 구조대가 4분 안에 도착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발견한 사람의 응급조치에 따라 생과 사가 갈리는 것이다.

방관자 or 착한 사마리아인

BYSTANDER EFFECT

안타까운 일이긴 해도 에릭센의 경우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의료진이 곧장 투입될 수 있는 경기중에 심정지가 온 터라, 지체 않고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을 뒤로한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야 최악의 상황이라지만, 누군가 곁에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에 빠진 타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 못한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거니 하거나, 그 일이 별 것 아닌 경우 생길 수 있는 어색한 상황에 대한 우려, 혹은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여기는 다수의 무지 때문이다. 이런 심리 현상을 '방관자효과(Bystander Effect)'라 한다. 여기에는 괜히 사건이 휘말렸다가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게 작용한다. CPR 도중에 환자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지, 그 책임 때문에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다.

GOOD SAMARITAN LAW

방관자효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착한 사마리안법(Good Samaritan Law)' 이다.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성서('누가복음' 10장)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법은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는 일이 없음에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착한 사마리안법을 도입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만 되어왔다. 위험에 빠진 타인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는 하나,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서 개인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아서이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제한하였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인가.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에서 행한 도움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적어도 생과 사를 결정할 중대 사안에서라면,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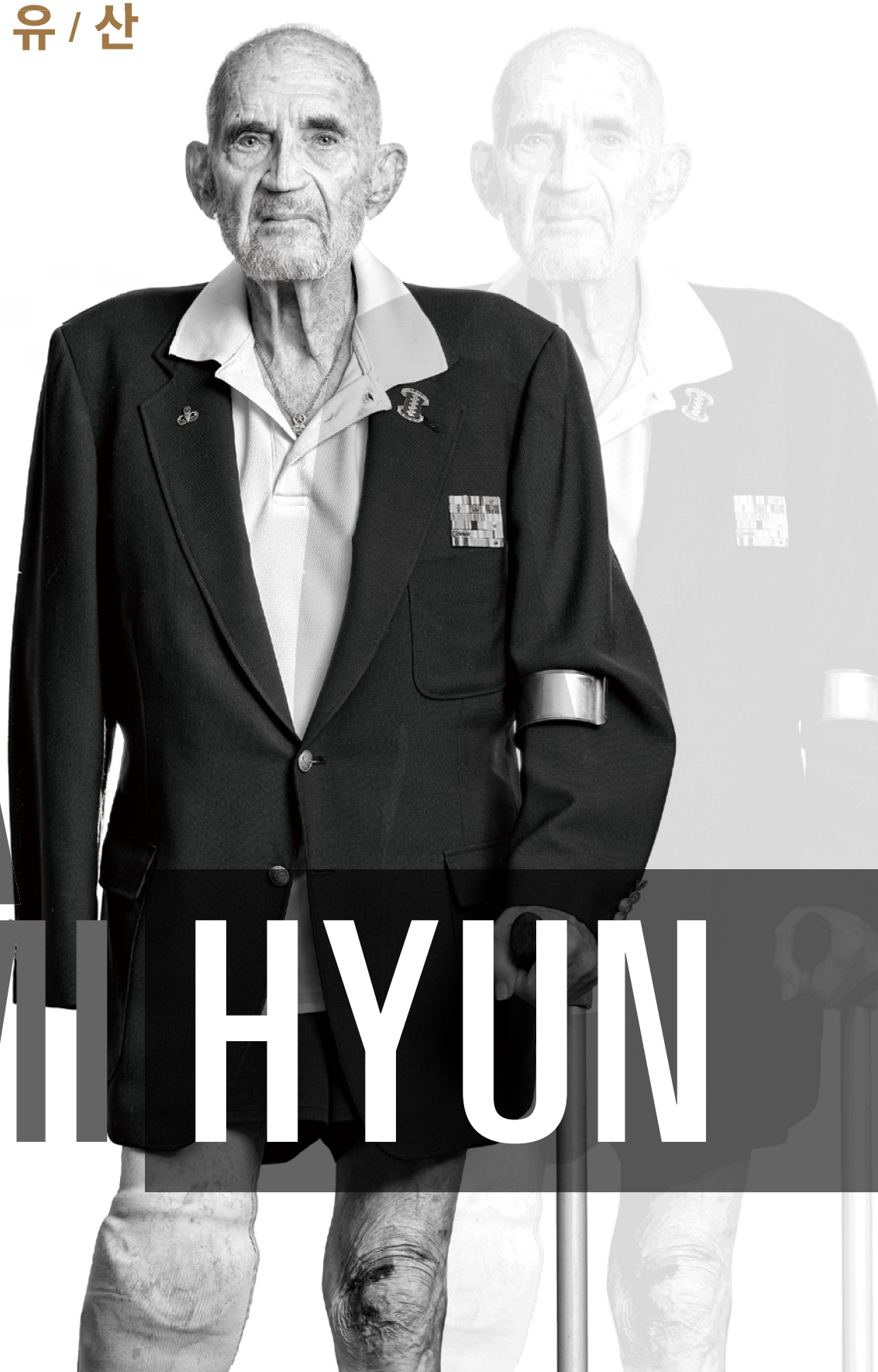
심혈관질환 환자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맞닥뜨릴 수 있다. 각급 학교나 단체, 직장 내에서 심폐소생 교육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관련하여 성우하이텍도 4일에 걸쳐(5월 13일, 17일, 20일, 21일) 정관, 코일, 지사, 금형, 핫스탬핑의 관리감독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을 시행하였다. 내 가족, 내 동료를 구할 수도 있는, 응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구조 조치. 이번 교육이 이를 위한 최소한의 바탕이 되었기를 바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함.

사진으로 기억하고 남기는
위 / 대 / 한 / 유 / 산

라미 현효제 작가



RA MI HYUN

참전용사,
그들의 눈빛에 담긴 자부심

널찍한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하얀 벽면 가득 노병들을 만난다. 출신지도, 군복도 제각각인 노병들. 눈빛만은 생생히 살아 가슴을 저릿하게 한다. 라미 작가를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한 계기 역시 이들의 눈빛이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살 스칼라토 미 해병을 만났을 때입니다. 스스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해병이라 소개하시는데, 그분 눈빛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참전용사로서의 자부심이었지요. '왜 저 사람은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했는데 저런 자부심이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듣고 싶었지요."
이제껏 촬영하면서 만난 군인들과는 다른 무언가. 그 다름은 실제로 전쟁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서 왔다. 총알이 빗발치고 바로 곁에서 포탄이 터지는, 조금 전까지 이야기 나누던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의 눈빛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평화를 수호했다는 자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71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미국, 영국 등지를 찾아 직접 만나본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 참전용사들과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평화가 일상이 되자 '잊혀진 전쟁'에 참전한 옛 군인은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자부심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먼 타국에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젊은 청년. 생전 처음 만나는 타국의 젊은이는 옛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노병의 눈빛은 살아났고, 목숨을 걸고 평화를 지켜냈던 젊은 시절의 자부심이 깨어났다. 제복을 꺼내 다시 입고 앵글을 바라보는 그들의 자세는 당당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1년이 되는 해이다. 평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는 그러나 전쟁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6·25전쟁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되어버렸다. 덩달아, 목숨을 걸고 평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까지도 잊혀져버렸다. 역사 속에 갇혀 박제된 그들을 다시 깨운 이가 있다. 7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도 꺼지지 않은, 생생히 살아있는 자부심을 오늘에 깨운 이, 라미 현(현효제) 작가다. 라미 작가를 만난 곳은 유엔평화기념관 <프로젝트 솔저 : 특별전 사진전 (SEARCHING FOR KOREAN WAR VETERANS :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서)> 전시장에서였다. 6월 6일 현충일을 하루 앞둔 그 날, 라미 작가는 부산지역 참전용사들의 촬영 진행으로 분주했다.

모든 프로젝트를 자비로 진행했다. 실제로 사진 액자를 받은 거의 모든 분이 얼마를 지불하면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라미 작가의 대답은 한결같다.
"71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이 떠안기에 가벼운 짐이 아니다. 상업사진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장비까지 내다 팔기도 했다. 그러나 사진을 전달하고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라미 작가는 참전용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인간 대 인간으로 포옹을 나누며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얻는다.

실제로 사진 액자를 받은 거의 모든 분이
얼마를 지불하면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라미 작가의 대답은 한결같다.

"71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유엔평화기념관에서의 전시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전시가 진행되는 유엔평화기념관은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과거'를 담고 있는 곳이다. 이에 기념관 측에서 라미 작가에게 제안을 해왔다고 한다. 라미 작가가 기록한 '현재'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전시로서 의미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눈빛이 다 같습니다. 그들이 왜, 무엇을 남겼고, 왜 자부심을 갖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전용사의 영웅적 면모를 극대화하고 싶어 전시 사진도 크게 출력했다.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눈빛 속에 살아있는 그 감정을 보다 생생히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라미 현 작가는 자신의 역할을 '메신저(Messenger)'로 정의했다. 잊혀진 영웅들을 다시 일깨우고 영웅적 면모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의 유산이 될 것이다.
"참전용사들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만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참전용사들은 한이 많으십니다.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전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 하나로 감동을 하세요. 실제로 전시를 본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럴 때 뿌듯하지요. 아직은 요원하지만, 그런 문화가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라미 작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솔저(PROJECT SOLDIER)'는 군인 및 참전용사 등 유니폼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이다. 군인과 그 가족의 사진, 참전용사, 소방관, 경찰관 시리즈로 기획되어 있는데, 2023년까지는 참전용사 촬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까닭이다. 되도록 많은 분을, 빨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

보다 많은 국가를 찾아 전시를 통해 참전용사를 세상에 알리고, 이에 대해 교육하고 싶은 것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터키를 제외하고는 참전용사에 대해 교육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에 관해 라미 작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지금 제게 쏟아지는 관심 역시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어릴 적 그들의 영웅적 면모를 교육받았거든요. 방송 출연이 그 옛 기억을 되살리고 감정을 건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요. 되도록 많은 나라를 찾아 잊혀진 참전용사를 알리고 그들의 영웅적 면모에 대해 교육하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 K-Movie와 사랑에 빠지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2020년 2월 9일(현지 시각) LA 돌비극장,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무려 네 차례나 호명되었다. '화이트 오스카'라 불릴 만큼 백인 위주의 콧대 높은 아카데미는 이 영화 이전에 한국 영화를 후보로조차 올리지 않았다. 그런 아카데미 회원들이 작품상과 각본상, 외국어영화상, 감독상까지 한국 영화 <기생충>에 표를 던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_ 구글 이미지, IMDB

변방 영화의 화려한 오스카 입성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루로 기억된 이 날로부터 1년여가 흐른 2021년 4월. 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윤여정이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이다. 한국 영화(<미나리>는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미국 영화'로, 1세대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애정이 영화 자체를 넘어 배우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결과였다. 노미네이트 순간부터 수상 불발을 오히려 이변으로 여길 정도였던 만큼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다.

한편, <기생충>의 한국 최초 오스카 노미네이트를 예상하며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던 2019년 10월, 미 매체 「벌처」와 진행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를 모았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제가 아니지 않나. 매우 '로컬'(지역적)이니까(The Oscars are not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y're very local.)"

백인 일색인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날리는 유쾌한 한방이었다. 물론 영화계에서 오스카의 위상은 세계 3대 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영화제) 못지않다. 8천400명에 이르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들 투표로 결정되는 아카데미는 '미국 영화 산업의 꽃'으로 일컬어진다. 그런 오스카의 영향력을 부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는 순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수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세계적인 스타(감독이건, 배우건)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다. 그래서 오스카 시즌이 되면 일명 **오스카 캠페인***, 수상을 위한 다양

한 프로모션과 이벤트에 열을 올린다. 봉준호 감독만 해도 100여 차례에 이르는 관객과 만남, 각종 시상식 및 애프터 파티, 500차례가 넘는 인터뷰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영향력 그대로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후 미국에 분 봉준호 바람은 전에 없이 거셌다. <기생충>은 변방의 작은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번져나갔다. 유튜브 채널에는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다양한 리뷰가 줄을 이었고, 영화 속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일명 '짜파구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포스트가 SNS에 넘쳐났다.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오스카 수상에 따른 화제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난다. 세계 최대 영화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의 북미 수익은 2021년 7월 1일 기준 5천300만 달러(600억 원)를 넘어섰고 글로벌 수익은 약 2억6천만 달러(3천억 원)에 이른다.

연기 인생 56년 만에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윤여정은 아카데미를 비롯해 영국 아카데미(BAFTA) 등 각종 시상식에서 42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미나리>에서 그가 분한 '코리안 그랜마'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힘과 별개로 윤여정이 특유의 재치 넘치는 인터뷰와 수상소감으로 현지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다.

* 아카데미 후보 지명과 수상을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객과의 만남, 각종 인터뷰와 관련 이벤트들이 해당한다.

세계가 사랑한 한국 영화

오스카 수상으로 세계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사실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수상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 영화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작품으로 많은 사람이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올드보이>를 꼽는다.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처절한 복수극이다. 살아 있는 낙지를 먹는 장면이나 망치 하나로 이뤄진 액션 시퀀스, 충격적인 결말 등이 해외 시네필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작품이다.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로 2004년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세계 영화제에 데뷔한 데 이어, 2009년 <박쥐>로 경쟁부문 심사위원상을, 2016년 <아가씨>로 경쟁부문 벌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 상업영화 최초로 좀비를 전방에 내세운 <부산행>은 'K-좀비'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부산행>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OTT 서비스*** 넷플릭스 <킹덤>과 <부산행>의 후속작 <반도>의 인기가 이어질 수 있었다. KTX라는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과 기차 속도만큼이나 숨 가쁜 전개로 단번에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영화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축소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단의 호평도 받은 작품이다. 좀비를 소재로 한 상업영화로서는 드물게 칸영화제에 초청된 것도 화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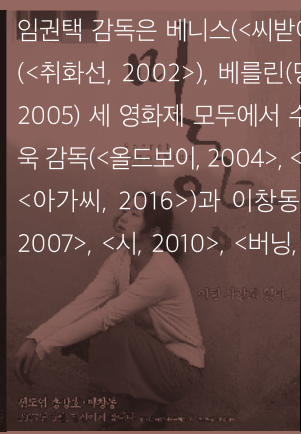
많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화려한 액션이 주를 이루는 영화, 심오한 주제를 다룬 작품만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상한 그녀>의 성공은 '좋은 콘텐츠의 힘은 결국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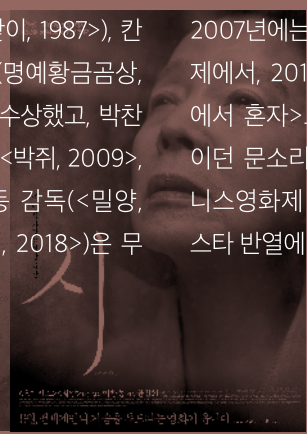
2014년 개봉한 <수상한 그녀>는 역대 코미디 영화 3위에 랭크될 정도로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각지에서 리메이크작이 개봉되어 한국 콘텐츠의 힘을 증명하였다.

* OTT 서비스(Over-the-top media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세계 3대 영화제의 한국 영화 사랑

한국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최초의 기록은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4회 아시아영화제에서 특별희극상을 수상한 <시집가는 날>이다. 이후 한국 영화는 1961년 <마부>의 베를린영화제 특별은곰상 수상을 시작으로 세계 3대 영화제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아왔다.





임권택 감독은 베니스(<씨받이, 1987>), 칸(<취화선, 2002>), 베를린(명예황금곰상, 2005) 세 영화제 모두에서 수상했고, 박찬욱 감독(<올드보이, 2004>, <박쥐, 2009>, <아가씨, 2016>)과 이창동 감독(<밀양, 2007>, <시, 2010>, <버닝, 2018>)은 무려 세 작품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에서 연이어 수상(<밤의 해변에서 혼자, 2017>, <도망친 여자, 2020>)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배우로서는 강수연의 1987년 제44회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이 최초였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밀양>으로 칸영화제에서, 2017년에는 김민희가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무명이던 문소리는 <오아시스>로 2002년 베니스영화제 여우신인상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세계 3대 영화제 역대 수상작

칸영화제

FESTIVAL DE CANNES

1999년 <소풍> 송일곤 감독 / 단편 경쟁부문 심사위원대상
2002년 <취화선> 임권택 감독 / 경쟁부문 감독상
2004년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 / 경쟁부문 심사위원대상
2005년 <주먹이 운다> 류승완 감독 /
감독 주간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망종> 장률 감독 /
비평가 주간 프랑스독립영화배급협회(ACID)상
2007년 <밀양> 이창동 감독 / 경쟁부문 여우주연상 (전도연)
<만남> 홍성훈 감독 / 시네파운데이션 3등상
2008년 <스탑> 박재옥 감독 / 시네파운데이션 3등상
2009년 <박쥐> 박찬욱 감독 / 경쟁부문 심사위원상
<남매의 집> 조성희 감독 / 시네파운데이션 3등상
2010년 <시> 이창동 감독 / 경쟁부문 각본상
<하하하> 홍상수 감독 / 주목할만한 시선 대상
2011년 <아리랑> 김기덕 감독 / 주목할만한 시선 대상
<야간비행> 손태겸 감독 / 시네파운데이션 3등상
2013년 <세이프> 문병곤 감독 / 단편 경쟁부문 황금종려상
2016년 <아가씨> 박찬욱 감독 / 경쟁부문 벌칸상 (류성희 미술감독)
2018년 <버닝> 이창동 감독 / 경쟁부문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벌칸상 (신점희 미술감독)
2019년 <기생충> 봉준호 감독 / 경쟁부문 황금종려상

베니스

MOSTRA INTERNAZIONALE D'ARTE CINEMATOGRAFICA

1987년 <씨받이> 임권택 감독 / 여우주연상(강수연)
2002년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 / 감독상, 여우신인상(문소리)
2004년 <빈집> 김기덕 감독 / 은사자상
2012년 <피에타> 김기덕 감독 / 황금사자상

베를린

1961년 <마부> 강대진 감독 / 특별은곰상
1993년 <화엄경> 장선우 감독 /
은곰상(알프레드 바우어상)
2004년 <사마리아> 김기덕 감독 / 은곰상(감독상)
2005년 임권택 감독 / 명예황금곰상
2007년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찬욱 감독 /
은곰상(알프레드 바우어상)
2010년 <파란만장> 박찬욱, 박찬경 감독 /
단편부분 황금곰상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홍상수 감독 /
여우주연상(김민희)
2020년 <도망친 여자> 홍상수 감독 / 은곰상(감독상)

가볍게 떠나는 언택트 감성 캠핑

차박

간편하게 차에서 휴식과 캠핑을 즐기는 차박이 인기다.
언택트가 보편화 되는 요즘, 프라이빗 힐링 여행이 대세가 되고 있다.
기존의 캠핑보다 가볍게 준비하고 떠날 수 있는 데 후한 점수를 준다.
올여름은 차박으로 소확행 감성캠핑을 즐겨보자.

차박을 위한 준비

캠핑과 다르지 않지만 준비에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하게 준비한다는 것에 마음도 가벼워진다.

차량정비

가장 중요한 차를 미리 정비하고 실내를 정리해두자.

필수 준비물

차박매트, 담요, 핫팩 등 보온용품, 텐트(차량 위에 설치하는 루프탑 텐트, 도킹텐트 등, 필수는 아님), 구급상자, 손전등

즐길거리

감성캠핑을 위한 조명과 소품, 대용량 베터리팩, 기타 상황이 된다면 야외에서 즐길 레저용품과 취사용품 등 취향에 맞는 즐길거리를 준비한다.

장소섭외

오토캠핑장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몇 달 전 예약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강이나 호수 등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피한다. 야영이 금지된 국립공원이나 사유지 등은 피한다.

#차박 #캠핑 #차박매트리스
#언택트여행 #갬성핑 #아웃도어
#심플라이프 #감성캠핑

주의사항

공기 순환을 위해 차창을 조금 열어둔다. 차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에어컨·히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취사가 가능한 곳에서만 취사를 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수거해 가져온다.

차박을 위한 TIP

차박하기 좋은 차! 따로 있을까?

차박 캠핑에 특정한 차종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들 SUV가 캠핑이나 차박에 좋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목적지의 거리에 따라 운전자는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행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 SUV의 장점은 오프로드 주행능력보다는 '공간활용'이다.

경차로 차박을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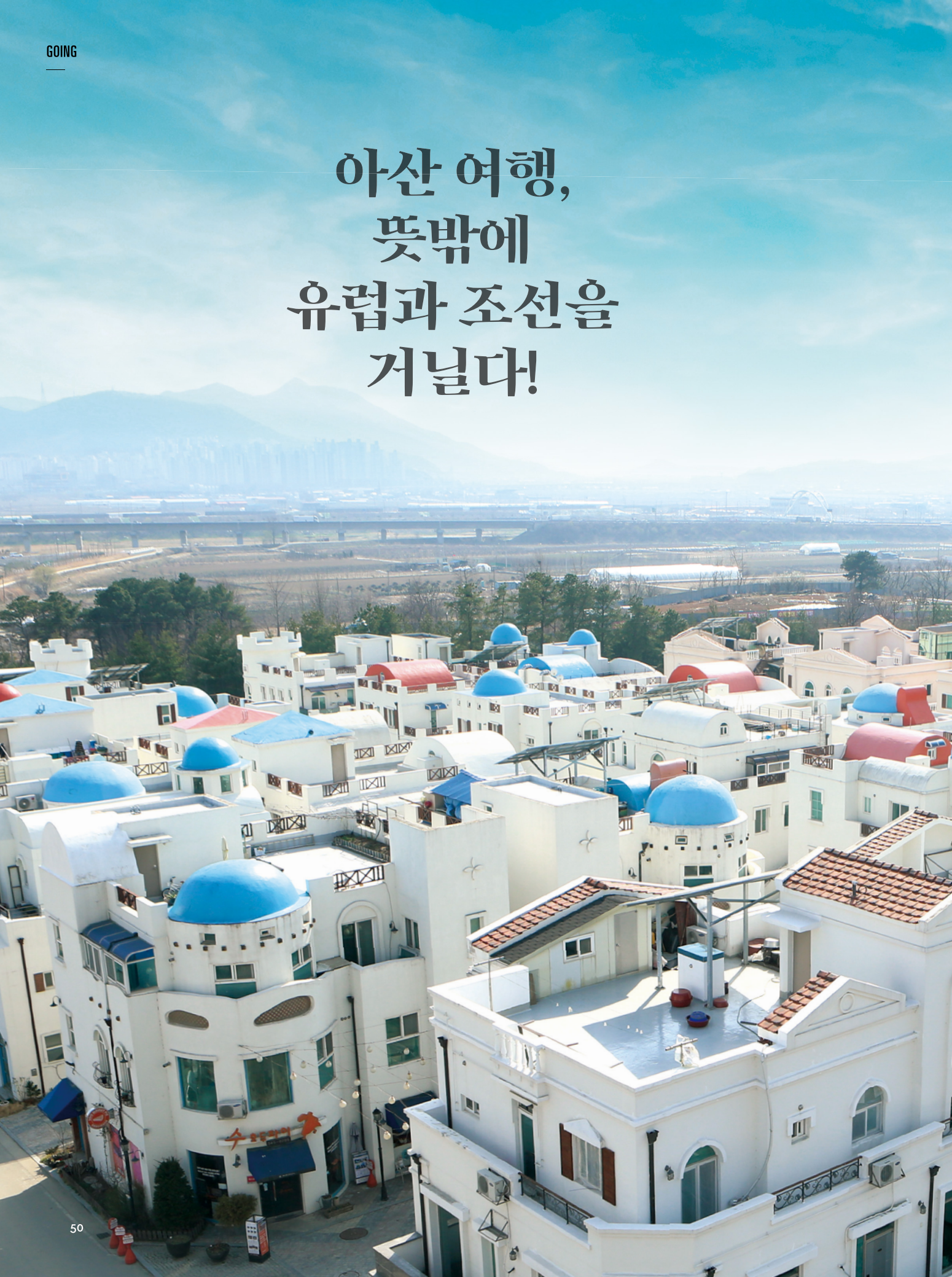
그래도 차박에 유리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 잘 때 편하도록 2열 시트가 풀 플랫이 되는지, 전고가 충분한지, 그리고 충분히 '갬성'을 느낄 수 있는지?

편한 잠자리를 만들자.

유쾌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안락하고 편한 잠자리는 중요하다. 실내 평탄화 작업이 중요하다. 토퍼 매트리스, 캠핑 에어매트, 차박 자충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으면 캠핑매트 및 캠핑 침대 등으로 차 내부가 아닌 야외에 잠자리를 설치할 수도 있다. 내 차와 활용도에 맞는 장비를 꼼꼼히 알아보고 구입할 것.

다만 냉기를 막는 목적의 발포매트는 얇은 재질 특성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특유의 탄성으로 접어 보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산 여행, 뜻밖에 유럽과 조선을 거닐다!



아산 지중해마을 ⓒ 아산시

이른 봄, 잎이 나기도 전에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목련.
아산의 시화(市花) 목련이 불러오는 공감각의 아지랑이는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아산에 봄내음을 입힌다. 유럽풍의 아담한 마을과 우리네
전통가옥을 한 번에 다녀볼 수 있는 여행은
뜻밖에 만난 행운 같은 여행이 될 것이다.

Walk around Joseon & Europe!

첨단의 도시에서 작은 유럽을 거닐다

아산 지중해마을

주로 포도농사를 짓던 마을에 몇 년 전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삶터를 이주한 주민들은 유럽풍으로 조성된 지금의 지중해마을로 재정착했다.
66동의 마을 건물은 1층에는 옷가게나 공예품 가게, 레스토랑, 카페 등의 상가로, 2층은 공방이나 전시 체험공간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임대공간으로, 3층은 마을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건물은 세 가지 콘셉트(산토리니, 파르테논, 프로방스)로 구역을 나누어 디자인되었다. <산토리니 구역>은 새하얀 건물과 돔 형태의 파란 지붕.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산뜻하고 밝은 스타일을 반영했다.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한 <파르테논 구역>은 대리석 기둥에 납작한 지붕이 올라가 우아한 기품이 느껴진다. 파스텔톤의 아기자기하고 부드러운 전원 분위기를 살린 곳은 <프로방스 구역>이다.
마을 전체가 포토존, 인스타 감성 맛집이다. 카페와 음식점은 맛과 멋이 부족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어 여행 명소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info.

찾아가는 길 아산시 탕정면로 8번길 55-7

고목들과 조화를 이룬 고딕

공세리성당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한 공세리성당은 충남도 지정 기념물 제144호다. 붉은 벽돌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성당은 전면 중앙부에 높은 종탑을 세운 고딕식 절충 양식으로 지어졌다. 130년을 바라보는 성당 주위로는 350살을 훌쩍 넘긴 보호수 네 그루가 함께한다. 성당을 지키는 장성이었겠다. 이제는 도리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 보일 만큼 늙은 기색이 역력하다. 거칠고 굵게 패인 나뭇결은 인생보다 길고 험난한 세월을 간직한 듯하다.

부설인 성지박물관에는 병인박해(1866) 당시의 유물과 순교자의 유품 등 1,500여 점이 보존되어 있다. 프랑스인 드비즈 신부가 직접 설계를 하고 건축을 진두지휘하여 완공하였다고 한다.

info.

찾아가는 길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성당길 10
문의 041-533-8181
홈페이지 www.gongseri.or.kr

© 아산시

물, 빛, 소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웰빙공원

신정호수공원

1926년에 조성된 인공호수로 최근에 관광지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호수에서는 모터보트와 오리배 등을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대여해 호수의 둘레길을 달리는 것도 좋겠다. 클래식 음악에 맞춰 분수가 나오는 '음악분수공원', 주변으로 즐비한 예쁜 카페와 음식점(맛집) 등도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SNS에 #신정호카페 #신정호맛집 검색해도 3만 개 이상의 게시물을 만날 수 있다.

info.

찾아가는 길 충남 아산시 신정로 616 **문의** 041-540-2518
홈페이지 www.asan.go.kr/sinjungho

© 아산시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아산외암마을

외암마을을 둘러싼 돌담(약 6km)이 마치 마을을 지키는 성벽과 같다. 그래서일까! 마을풍경이 마치 조선 시대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듯 하다.

500여 년 전 예안이씨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는데, 가옥들은 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지명을 따서 지어졌다. 참판댁, 병사댁, 감찰댁, 참봉댁 등의 택호가 있다.

마을 입구의 다리와 이어진 길가온을 두고 좌우로 샛길이 갈리는데, 샛길과 닿는 구릉지에 가옥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늘에서 볼 때, 마치 큰 나무의 작은 가지가 뻗어 열매가 맺힌 것 같은 모습이다.

무척이나 한국적인 분위기에 이색적이기도 하다. 조선의 예술적 감각이 자연스레 스민 듯 하나의 건축 예술이라 해도 될 만하다. 1988년 전통 건조물로 지정되었다가 2000년 중요 민속문화재 23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세계유산 점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저잣거리에서 노닐라치면 조선의 서민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마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 속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연인인 듯 아닌 듯 막 마음이 가는 친구와 데이트 중이라면, 드라마에서 이병헌이 했던 대사를 써먹을 절호의 찬스다. "합시다. 러브!"

다양한 전통체험과 먹거리, 행사 그리고 전통가옥 숙박체험은 가족, 연인, 단체 등 모든 사람에게 추억을 제공한다. 외암마을에서 보내는 하룻밤. 호롱불을 밝히던 조선의 밤을 잠시나마 다녀오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info.

찾아가는 길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9번길 13-2
문의 041-541-0848
관람료 어른 2,000원 / 어린이·청소년·군인 1,000원
홈페이지 www.oeam.co.kr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
같이 걸으실래요?

은행나무길

아산 시내 충무교에서 현충사로 넘어가면 은행나무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다. 염치읍 송곡리의 충무교부터 백암리의 현충사사거리까지 약 1.2㎞에 이르는 이 나무터널은 전국에서 가장 긴 은행나무 가로수길이다.
여기서 잠깐! 은행나무길이라 해서 가을 단풍이 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편견은 버리자. 사계절 언제든지 찾아도 힐링되는 최고의 가로수길이다.
봄이면 곡교천 둔치를 따라 샛노란 유채꽃 군락이 끝없이 펼쳐진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나무가 절정을 이루다가 코스모스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겨울의 설경은 묵향이 그윽한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이곳은 2000년과 2001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가을에는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

info.

찾아가는 길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info.

찾아가는 길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문의 041-539-4600 **홈페이지** hcs.cha.go.kr

임금이 기린 충신의 넋

현충사

"전하, 나라를 구한 충신인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지어야 합니다!"
"이순신이 자란 아산에 이순신의 사당을 세우도록 하라!"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 사후 100여 년이 지난 1704년(숙종 30년), 임금이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건립하고 친히 <현충사>란 휘호를 내렸다. 현충사에는 『난중일기』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편지 등이 보관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 허리에 둘렀던 요대를 비롯하여 이순신 장군의 유품과 임진왜란 당시에 쓰였던 무기들도 함께 전시한다.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옛집과 활 쏘는 연습을 했던 활터, 집안의 우물이었던 충무정, 이순신 장군의 막내아들인 이면(李薺, 1577~1597)의 무덤도 있다. 장군의 무덤은 현충사에서 멀지 않은 아산시 운봉면 어라산에 있다.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반가운 편지들이 도착했다.
학생들이 정성스레 쓴 30여 통의 손편지는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 “고등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보며 앞선 세대로서 보람을 느낀다.
> 미래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성우하이텍이 응원한다.”

성우하이텍은 2005년부터 매년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첫해 12명으로 시작한 장학생이 어느덧 345명이나 되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우하이텍이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았다. 이에 장학생들이 고마움을 한가득 담아 편지로 보내왔다.

편지에는 감사 인사와 함께 각양각색의 사연과 고민이 묻어났다. 전공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와 인류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학생,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 왔는데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다시 마음을 잡아보겠다는 학생, 코로나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성우하이텍을 걱정해주는 학생들의 편지가 웃음을 자아냈다.

서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별을 쏘다』 vol.12 p34~35 참고)와 또 다른 느낌의 고등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보며 앞선 세대로서 보람을 느낀다. 미래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성우하이텍이 응원한다.

▲ 2019년 수여식

저는 생명과학 중에서도
수리생물학과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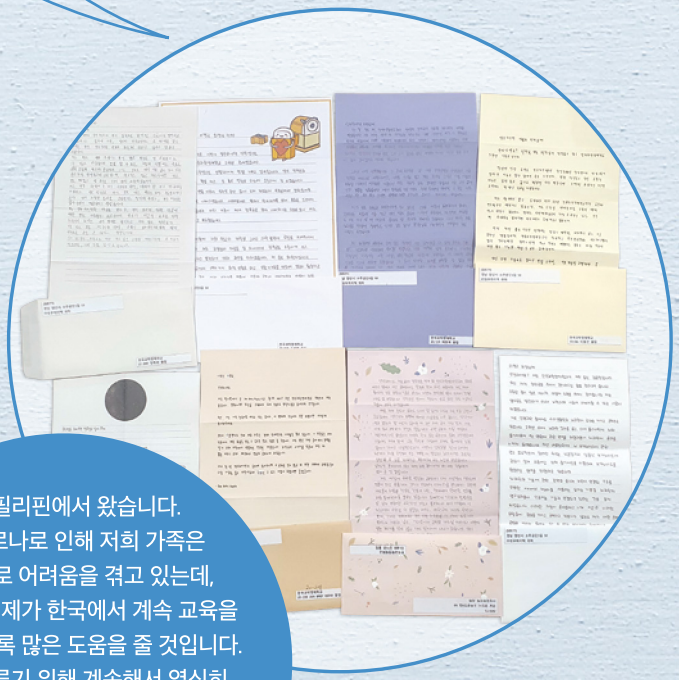
한국과학영재학교 **김문정**

저는 아직 공부해야 할 것이
많으며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장학금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더욱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실히 학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윤서경**

저의 진로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자고
다짐했었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저를 응원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민을 마주할 때마다
이번에 받은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김다은**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제가 한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우하이텍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JAN BREY ESP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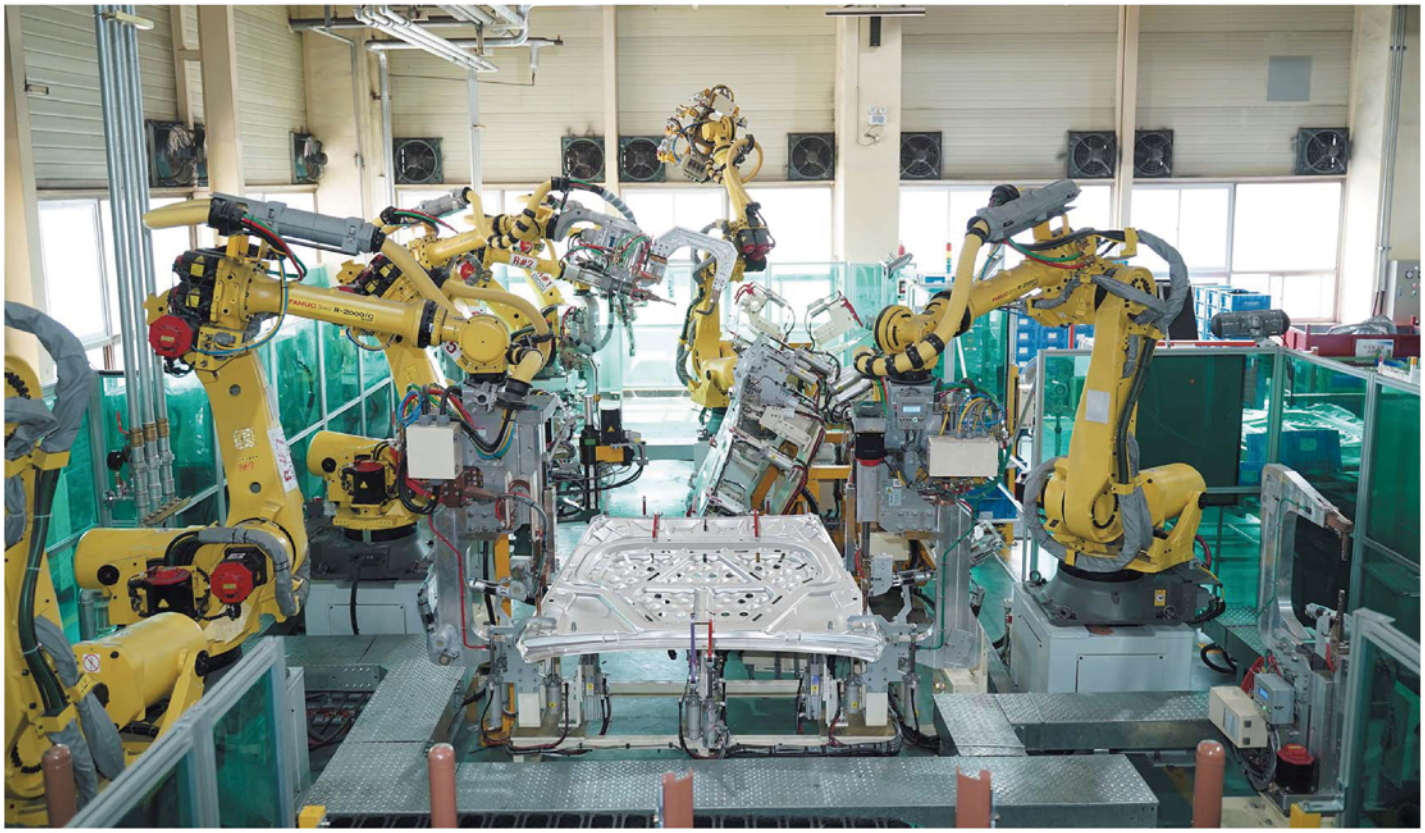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갈 길이 멀지만, 나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성우하이텍과 같이
이공학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 덕분에
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동건**

더 가볍고 튼튼하게… 미래 자동차 시장에 도전하는 부품산업 선도기업

성우하이텍

자율주행·친환경 연구투자 집중
전기차 차체·배터리 경량화 본격화
수소차 핵심 수소탱크 개발에 박차
제네시스 G80 알루미늄 차체 개발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



자동차부품 생산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주)성우하이텍이 이제 수소차·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오랜 차체 제작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는 이 기업은 배터리 경량화 등에 탁월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성우하이텍 생산 현장. 성우하이텍 제공

(주)성우하이텍은 1977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설립돼 현재 기장군 정관에 본사를 둔 향토 기업으로, 국내외 자동차 산업 발전사에 획을 그은 기업이다. 4월 현재 국내외 14개 법인, 36개 사업장, 종업원 1만 7000여 명의 규모와 연 매출 3조 3895억 원(19년 IFRS 연결 기준)의 실적을 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 가공, 성형, 조립, 도장 등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모두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 미래 자동차 시장을 향한 발돋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단어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이다. 테슬라의 급부상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성장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또 지구 온난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차 분야의 성장도 눈에 띈다. 성우하이텍은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성우하이텍은 2016년 성우스마트랩을 설립했다. 2018년에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FIR) 기술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아다스카이(ADASKY)와 조인식을 가졌다. 아다스카이는 적외선 카메라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FIR센서 '바이퍼'(Viper)를 개발했고, 성우하이텍은 20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투자를 통해 기존에 연구 중이던 라이다(LiDAR·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장치)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시너지 효

을 넘어 배터리모듈, 전장부품, 와이어링하네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로 제어되는 최종제품인 BSA(Battery System Assembly)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설비를 갖춰 전기차 배터리 완제품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연료저장장치(수소탱크) 개발에도 올해 안 인증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는 물에서 추출해 한 탄소 배출량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을 막거나 거의 없애는 방향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의 공통점은 '경량화'다. 경량화가 연비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친환경차도 배터리(전기차)와 수소탱크(수소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소재인 알루미늄을

왔다. 용융점이 낮아서 자동차에 주로 사용하던 철판(STEEL)의 스팟(SPOT) 용접으로는 접합이 불가능했고, 접합을 하더라도 전극전위가 낮아서 이중 금속과 접합 시 부식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다. 성우하이텍은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국내 최초 원격식(비접촉식) 레이저 용접과 여러 접합 방법을 접목시켜 알루미늄 차체 개발에 성공했고, 제네시스 G80, GV80에 공급하게

연구 중이던 라이다(LiDAR·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장치)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친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량화'에 있다. 전기차 드라이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충전소가 적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한 번 충전으로 보다 오래 쓰고, 멀리 갈 수 있다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커질 수 있다. 즉, 연비 향상이 전기차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자동차 무게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우하이텍은 경량화 기술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체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까지 무게를 줄였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GM본사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BEV3)을 적용한 캐딜락 최초 순수 전기차 '리릭'(Lyriq)의 차체와 배터리 케이스를 성우하이텍 멕시코에서 생산해 2022년부터 8년간 납품하는 약 5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주)성우하이텍 서창공장. 성우하이텍 제공

체결했다.

또 이를 위해 약 224억 원을 출자해 미국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고 올해까지 720억 원을 투입해 공장과 생산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BPC·Battery Pack Case)는 2022년 초부터 연간 15만 대 규모(8년간 약 4580억 원)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장착될 것이다. 성우하이텍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배터리 케이스 생산 배터리 완제품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연료저장장치(수소탱크) 개발에도 올해 안 인증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는 물에서 추출해 내는데, 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영구무한의 청정 에너지로서 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소 연료를 저장하는 수소탱크 성능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수소전기차에서 수소 연료는 수소 분자를 압축해 700 bar 정도의 압력으로 탱크에 저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탱크가 700bar의 높은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재는 강철보다 강도는 6배, 강성은 4배에 달하면서도 가벼운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을 활용하고 있다.

■ 가볍게, 더 가볍게, 그보다 더 튼튼하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연비 향상을 통적인 역할을 하며, 친환경차도 배터리(전기차)와 수소탱크(수소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소재인 알루미늄을 다루는 기술이다.

지난해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시장에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놨다. 제네시스 G80과 GV80에 이용되는 알루미늄 차체(도어, 범퍼, 후드 등)를 개발한 것이다.

알루미늄은 일반 철판(STEEL) 무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연비를 향상시키며,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자연 코팅막을 생성함으로써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소재다. 또 진동의 감폭 능력(DAMPING)이 뛰어나 운행 중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켜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고, 탑승자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차체 소재로 사용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본질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었다. 알루미늄은 다루기 어려운 소재 중 하나로 여겨져 점이 있었다. 성우하이텍은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국내 최초 원격식(비접촉식) 레이저 용접과 여러 접합 방법을 접목시켜 알루미늄 차체 개발에 성공했고, 제네시스 G80, GV80에 공급하게 됐다.

성우하이텍은 알루미늄 외에도 기가스틸, 초고장력강,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 마그네슘과 같은 신소재를 적용한 경량화 성형 기술과 고강도 판재를 성형하는 롤포밍 공법, 핫스탬핑 공법, 이종재료 접합 기술, 충돌 성능 강성을 위한 설계 해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올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제1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 기업으로 유일하게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인정 받았고, 그 외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분야에 걸맞은 복합 소재 차체 부품 양산, 배터리 케이스 제작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소형 기구 생산업체에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현대차 몰딩 납품으로 차체산업 시작
연구개발 발판 미국·유럽·중국 진출

(주)성우하이텍은 설립 초 농기구, 주방기구,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이었다. 기구 스테인레스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1983년, 현대자동차 '스텔라'의 몰딩을 개발·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기존 사업도 수익성이 좋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잇따라 개통하고 '마이카' '오너드라이버'란 말이 유행하던 시대적 흐름을 읽고 자동차 '차체' 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

1994년 성우하이텍은 국내 차체 부품업계 최초로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했다. 부품업계로서는 혁신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었다. 부품업체는 주문대로 만들기만 하는 역할에 머무르면 된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성우하이텍은 부품업체도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자동차 부품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3저현상'(저달러·저유가·저금리)으로 인한 경제호황기에 다른 기업들이 외형 확장과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할 때, 성우하이텍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집중했다.

성우하이텍은 1997년,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 건설을 계기로 국내 부품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영광과 함께 위험을 동반한다. 몇 개월 후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사태, 즉 'IMF 구제금융' 요청 상황에 이르렀다. '대마불사'(大馬不死)로 여겼던 대기업들도 연쇄부도가 발생했고, 승승장구하던 자동차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성우하이텍 역시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할 것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1998년, 인도공장을 본격 가동한 후 19개월 만에 현지 전략형 모델인 '상트로'(국내명 '아토스')가 인도 소형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 다대공장(현재 지사공장으로 이전)에서 생산한 '마티즈' 판매가 호조를 띄었다. '금빛' 마티즈는 IMF로 어두워진 국내 소비자들의 소망을 담아 국내 경차 시장을 석권했고, 성우하이텍의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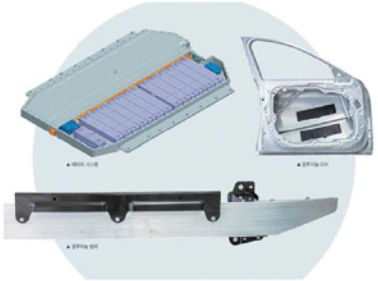
이를 발판 삼아 2002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중국 6개 법인(베이징, 우시, 옌청, 심양, 창주, 충칭), 2004년 체코 오스트라바를 시작으로 유럽 5개국(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독일, 폴란드), 2011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설립으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인도)를 이었고, 2014년 멕시코 몬테레이의 법인과 올해 미국 디트로이트 지점의 북중미 시장까지 진출하였다. 자동차 3대 시장이라 불리는 미국, 유럽, 중국에 교두보를 마련해 글로벌 성우하이텍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성우하이텍은 위기일수록 더욱 힘을 합치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자랑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쓰러져 갔지만, 성우하이텍은 부진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당시 회사는 구조조정 대신 고용보장을 직원들에게 약속했고, 이에 직원들은 임금 동결, 상여금 반납을 결의하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2015년에는 이명근 회장이 개인 주식 182만 9450주(당시 274억 원)를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증여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이 아닌 최대 주주가 가진 주식을 전 직원들에게 무상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성우하이텍은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성우공동모금'을 발족해 회사 주도 방식이 아닌 임직원 참여 방식으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성우공동모금'은 참여 희망 임직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역 초등학교 급식 후원, '소주동 착한 이웃 나눔 냉장고' 사업 등을 펼쳤다.

이현정 기자



(주)성우하이텍은 기업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이름나 있다. 이명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역시 '성우공동모금'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성우하이텍이 생산한 제품들.

성우하이텍 제공

친환경차 시대를 선도하다

수송 체계의 패러다임이 전기·수소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로 빠르게 바뀌는 시대.
'전기차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신축한 성우하이텍이
친환경차 부품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SUNGWOO HITECH

국내

㈜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타,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아산성우하이텍, ㈜성우홀딩스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인도SHA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